

HI

라디오서울 한국TV매거진

Aug 27, 2024 VOL.27

표지모델 - 가수 뉴진스 하니

radioseoul1650.com 많이 본 뉴스
- [기획연재]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 상업용 부동산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 뉴스
- “범죄 꼼짝 마” 워싱턴 메트로에 감시카메라 ‘3만개’

서울경제 뉴스와이드
- “돈 많으면 노후에 걱정 없다고?”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 (213) 725-2857
부에나 파크 (714) 455-3739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교통사고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www.cz.law
CZ Law Group

황인용 심장 / 혈관 내과

Inyong Hwang, M.D. FACC, RPVI, ABVM



www.HeartDoctorLA.com
www.황인용따뜻한심장내과.com
3130 West Olympic Blvd,
Suite #250, LA, CA. 90006

(213) 528-1111

은퇴, 상속, 절세,
401K 롤오버, 생명보험 학자금,
재정에 대한 모든 문의와 플랜은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성민산삼한방병원

www.sansamsale.com



809 S. Hobart Blvd. L.A., CA 90005
(진료시간 월-토 09:30am-06:30pm)

(213)385-3304 (산삼공사)

미래관광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여행사
고객만족도 1위!

www.miretravel.com

213-385-1000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무료 상담



Ye Ja Kim (김예자) Lic #: 0F07964
714.773.2939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714.872.9377

562.640.0643

중국 정통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음한의원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657)325-4000

용자나라 협찬 스타벅스\$20카드 radioseoul1650.com오세요

LICENSE NUMBER OH00486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7979 Fax. 213-674-4383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VIRGINIA OFFICE

9001 Braddock Rd. Suite 390 Springfield, VA 22151
Tel. 703-256-0707

SAN DIEGO OFFICE

7655 Clairemont Mesa Blvd., Suite 308 San Diego, CA 92111
Tel. 213-388-7979

함께 일하실 경험있는 보험에이전트를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hr@ugfriend.com으로
Resum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IFE | HEALTH | AUTO | HOME | BUSINESS | WORKER'S COMP. | RETIREMENT



그룹 '쿨' 멤버

이재훈 & 김원준

Lee Jae Hoon of 'Cool' & Kim Won Jun

9월 21일, 토요일 · 7PM

티켓 가격 \$80부터 시작
PECHANGA SUMMIT 라이브 공연

티켓 구매 핫라인: 714.232.0000 또는 온라인 KoreanConcert.net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888.810.8871 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7.711.2WIN • PECHANGA.COM

남가주 와인 컨트리 테메쿨라 밸리에 있으며,
I-15 출구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45000 Pechanga Parkway, Temecula, CA 92592

본사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도박이 가능합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800.GAMBLER.



새로 1주년

감사 할인 프로모션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PER 1.5 FL. OZ (44 ML) - AVERAGE ANALYSIS

CALORIES	CARBOHYDRATES	PROTEIN	FAT
39	0g	0g	0g

제로 슈거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새로 

라디오서울 생방송과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그리고 매거진에 게재된 뉴스 등 다양한 정보와 읽을 거리, 들을 거리가 있는 radioseoul1650.com 을 컴퓨터, 핸드폰으로 방문하세요.

기획연재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자유낙하 (1)



LA 카운티 오피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한인타운 월세가 공실률은 36.2%까지 치솟았다. 빈 사무실이 없기로 유명한 월턴 극장 건물에 리스 사인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최근 미국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은 '부채 폭탄'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경제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연재를 통해 이러한 위기의 배경과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위기의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급감.
2. 금리 인상: 미 연준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용자 비용이 증가.
3. 경기 침체 우려: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

현재 상황

-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 떨어졌다.
-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잠재적 영향

1. 금융 시스템 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가 은행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 경제 성장 둔화: 건설 및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3. 투자자 손실: REIT(부동산 투자 신탁) 등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의 가치가 하락 예상.

엘에이 부동산 시장의 예상 피해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시장은 이번 위기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1. 오피스 공실률: LA 다운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은 2023년 4분기 기준 27.8%로, 전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말까지 이 수치가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임대료 하락: 프라임 오피스 공간의 평균 임대료는 2023년 대비 약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평방피트당 연간 \$3.80에서 \$4.50의 하락을 의미한다.
 3. 부동산 가치 하락: LA 카운티 내 상업용 부동산의 총 가치는 약 10-1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억에서 750억 달러의 가치 손실을 의미한다.
 4. 대출 부실화: LA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약 18%가 2024년 말까지 부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 약 120억 달러에 해당한다.
 5. 고용 영향: 부동산 및 관련 서비스 업종에서 약 25,000에서 30,000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세수 감소: LA 시의 부동산세 수입이 약 7-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3억에서 4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 이러한 수치들은 LA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엘에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몰락은 돈을 빌려준 지역 은행들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로 볼륨이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지역 은행으로 번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CONTENTS

- 라디오서울 그때 이 뉴스 19
- 한국일보, 서울경제 댓글와글와글 20
- 김해원변호사 노동법이야기 30
- 김준철 시인 한문장의생각 35
- 택시기사미스터리 LA세상만사 37
- 실버시티보험 시니어칼럼 36
- 정재윤방송인 짧은상식 32
- 유튜브 켄PD 이민야사 29
- 연어가 뉴스 55, 56
- K-NOW 영문판: Kpop뉴스 51
- 이경희변호사 이민법칼럼 38
- H독자참여코너: 이 사진 한장 59
- 이지효교수 한국사는 이야기 45
- 리처드김 미국 사는 이야기 27
- H휴지통: 버리고 싶은 이야기 21
- 서울경제 시사경제칼럼 21
- 오늘저녁 이노래 한국 61
-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27
- H톡톡인터뷰: 패트릭김 EMP대표 24
- H동네책방: 알라딘서점 신간안내 50

구독문의
323-692-2054

www.koreatimes.com

광고문의: **213-304-3486**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백신 추가 접종해야하나?

◆ 코로나19 재확산에 부스터 샷 고민 커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부스터 샷 접종 시기에 대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가을 출시될 새로운 백신이 나올때까지 기다릴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추가 부스터 샷 접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부스터 샷 고민 커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부스터 샷 접종 시기에 대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가을 출시될 새로운 백신이 나올때까지 기다릴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추가 부스터 샷 접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변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2일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박상혁 기자]



도로에 대각선 주차, 자전거 레인 둘러싸고 운전자와 주민들간 갑론을박



최근 타운을 비롯해 엘에이 일원 도로에 자전거 레인과 대각선 주차선이 마련되면서, 도로가 좁아져 교통 체증이 악화된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선 주차로 주차공간 부족난을 해소할수 있다며 반기는 주민들도 있어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엘에이 시가 도로를 친환경으로 디

자인하면서, 새로 보수를 마친 도로가 타운을 비롯해 엘에이 곳곳에 늘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 레인을 만들거나, 비스듬히 차량을 주차할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면서 기존 도로의 차선이 줄면서, 운전자들은 가득이나 교통 체증이 심한데, 차선이 더 줄면서 교통체

증을 악화시킨다고 짜증섞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자전거 차선이 마련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을 늘어나 궁극적으로 교통 체증을 해소시킬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엘에이처럼 방대한 지역에서 자전거로 이동할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어 자전거 레인을 늘려 교통 체증 해소 효과를 본

다는것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자전거 차선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이들도 있어 자전거 차선으로 운전하기가 더 불안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엘에이 시내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바쁜 출퇴근 시간에 불필요한 도로공간을 내주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대각선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라노 애브뉴 선상 윌셔블루바드부터 7가 까지 구간에 한쪽은 패러렐 파킹, 다른 한 쪽은 대각선 파킹이 이뤄지도록 도로가 디자인되었는데, 타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가득이나 복잡한 지역에 대각선 주차선 때문에 도로가 협소해졌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애 미숙한 한 여성 운전자는 운전애 미숙한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시 도로의 공간이 많이 확보되야 마음을 놓고 운전할 수 있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도로를 운전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각선으로 주차된 차들이 도로 한복판으로 공간을 밀고 들어오면서 미숙한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중 주차된 차와 부딪힐까봐 조마조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타운에서 대각선 주차로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는 사실을 반기는 지역 주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주차전쟁을 벌여야 하는 한인 타운에서는 대각선 주차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각선 파킹의 경우 쉽게 파킹하고 이후 차를 빼는 상황이 훨씬 수월해지는 이유로 인해 대각선 파킹이 더 좋습니다”

“운전차선 표시가 잘 돼 있어서 운전시 별다른 사고의 불안은 없습니다”

타운을 비롯한 시내 주차공간의 확보 혹은 어려운 운전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되 도로의 대각선 주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디오서울이른기자>

가주민 대다수가 절도행각 처벌 강화하는 프로포지션 36 강력지지

캘리포니아 유권자 대다수가 절도행각과 펜타닐 범죄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6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6일) 공개된 UC 버클리 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가주민 56퍼센트가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질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23퍼센트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21퍼센트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발의안 36은 10년전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 발의안 47을 개정해 반복적인 절도와 펜타닐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형량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36은 가주의 보수 성향 검사들과 리테일 매장이 주도해 오는 선거에 붙여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가주에서 소매 절도와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각이 급증하면서 950달러 미만의 절도행각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주민 발의안 47을 늘어나는 강절도 행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 발의안 47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6이 오는 11월 투표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UC버클리 연구팀은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지지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두배나 많은 이유는, 최근 수년동안 감시 카메라등을 통해 강절도 행각이 영상으로 잡히면서 더 피부로 와닿게 된점, 빈발하는 강절도 피해를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절도행각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예스 온 프로포지션 36 캠페인의 대변인은 이번 여론조사가 가주민들이 노숙자와 마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해결책을 원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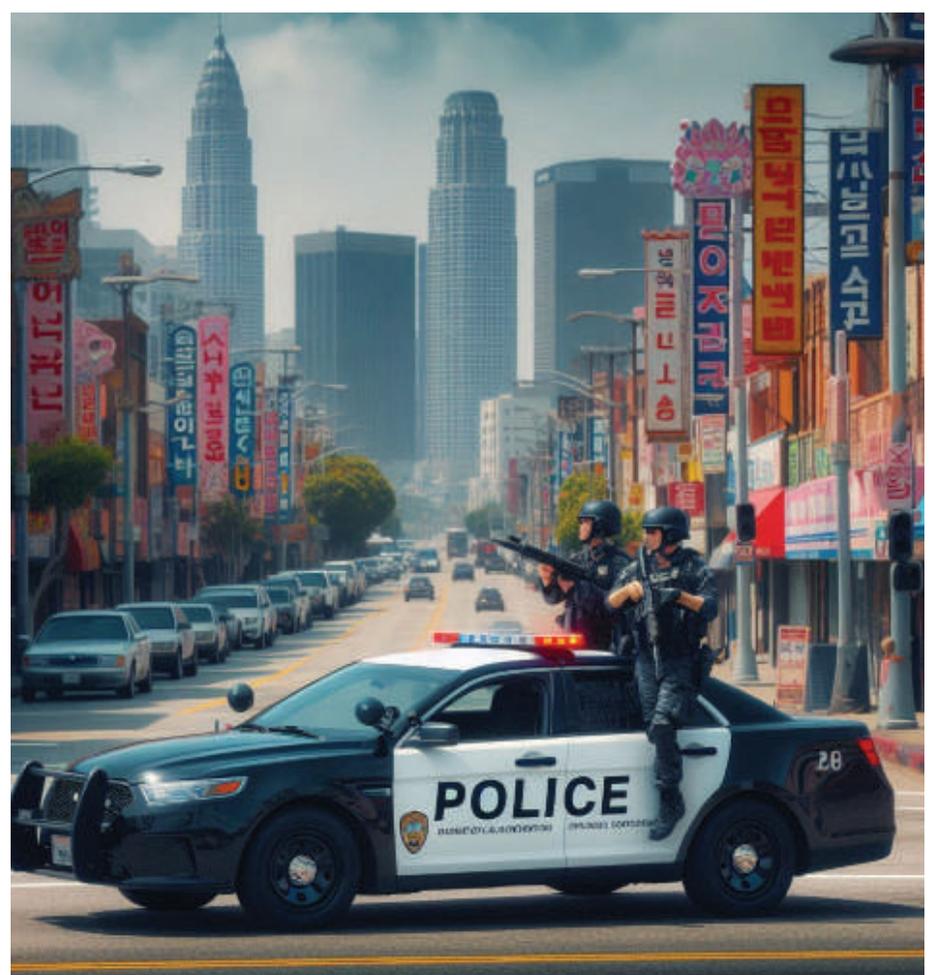
한편, 가주의 최저 시급을 16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자는 프로포지션 32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수인 52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34퍼센트는 반대했습니다.

렌트 콘트롤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33에 대해서는 응답자 40%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34%는 반대했습니다.

주민 발의안 33은 가주내 로컬 정부에 관할 구역에서 렌트비를 규제하는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USC

암 건강 관리 클리닉

암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원스톱 주치의 서비스**를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LA 한인 타운과 부에나 파크 오피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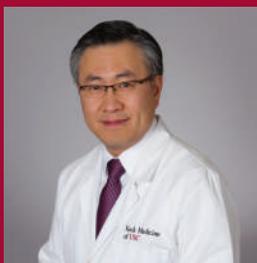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의 전문의들은 진단에서 질병 예방, 치료, 암 완치자들의 후속 건강 관리 및 2차 소견까지 암에 관한 모든 분야에 걸쳐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검진에서 유전자 검사, 생활 습관 및 영양 상담까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어느 단계에 있든 저희 암 전문의들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서 가장 적합한 맞춤 치료 플랜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한계는 없습니다.

미국내 탑 15 암센터



안상훈 MD, MPH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한국 국립암센터 암 예방검진 전임의
USC 의대 종양(암) 내과 부교수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LA 한인타운 및 부에나 파크 오피스 디렉터
미국 내과 전문의, 종양(암) 내과 전문의

메디케어, 메디칼, PPO 보험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상담해 보세요!

LA 한인타운 (213) 668-5802

500 South Virgil Ave Suite 502, Los Angeles, CA 90020

부에나 파크 (714) 759-9613

5832 Beach Blvd Suite 201, Buena Park, CA 90621

KeckMedicine.org/KT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In New York

광복절 기념사 불만표출 “한치의 후회도 없다”



김의환 총영사가 동포 언론 간담회에서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자신의 발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 동포 언론 간담회서 입장 밝혀 광복회장 기념사에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 발언 파장 일자 “광복절 행사 앞으로 코리아센터 등 다른 장소서 개최” 제안도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동포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 15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유진희 광복회 뉴욕지회장이 대독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두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할 말을 한 것으로 한치의 후회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맨하탄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동포언론 간담회에서 김 총영

사는 “개인을 욕한 것도 아니고 기념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과 정부가 모욕당하는 경우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 총영사는 유진희 광복회 뉴욕지회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고 내려간 뒤 단상에 올라 “저런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듣고 있자니 내

가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논란이 일었다. [본보 8월16일자 A3면 보도]

이를 두고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이 뉴욕으로까지 번졌다는 시각과 함께 뉴욕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200여 한인 동포가 참석한 뉴욕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국 정부 공직자를 대표해

참석한 김 총영사가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불편하게 여겼던 동포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유감이다”라면서도 “공직자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와 관련해 김 총영사는 향후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은 뉴욕한국문화원의 코리아센터 등의 공간에서 뉴욕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뉴욕에서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 등을 주최했던 뉴욕한인회 등과는 차차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총영사를 비롯해 총영사관의 각 분야별 영사들이 대거 참석해 김 총영사 부임 이후 지난 1년 7개월간 총영사관의 주요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전했다.

김 총영사는 “뉴욕시경 등 주요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다. 경찰의 과잉대응이 이씨 사망을 야기했다고 본다. 이씨가 미 시민권자라 공관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한국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뉴욕 일원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총영사관은 “올 초 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승인 결과를 받아보고 당혹스러웠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포청에 건의했다.

이에 지난 5월 이후 뉴욕 일원 3개 동포단체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등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동포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총영사관은 내년 12월 이전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현재 총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맨하탄 460파크애비뉴의 한국무역협회 소유 건물이 2026년 리모델링이 예정돼 내년 12월 전에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맨하탄 32가 한인타운과 가까운 그랜드센트럴역 인근 등 동포 접근성이 가까운 장소의 건물을 물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새롭게 사용할 임시 공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뉴욕총영사관 단독 청사 개발 프로젝트도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총영사관은 민원실 실무관을 1명 증원하고 민원 예약 가능시기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민원 업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n Atlanta

장애인 간병인 임금 크게 오른다

시간당 평균13달러→17달러 7월부터 소급 적용 가을 지급

조지아 주정부가 장애인 간병인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20일 장애인 간병인에 대한 임금을 현행 시간당 평균 10.63달러에서 16.70달러로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간병인들의 초임은 13달러에서 17달러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2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조지아 내 장애인 간병

인들은 빠르면 가을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임금은 7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유급휴가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인상조치는 지난 7월 연방정부가 조지아 주정부의 인상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주정부는 연간 1억 800만 달러를, 연방정부는 연간 약 2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

조지아 행동건강 및 장애인 지원

국의 케빈 태너 커미셔너는 이번 조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지아에서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을 돌봐 왔던 단체들은 공공지원자금 부족으로 인한 낮은 임금으로 간병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간병인들이 이탈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간병인들은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을 병행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



그 동안 저임금에 시달렸던 조지아내 장애인 간병인들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 <셔터스톡>

려 왔다.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운영 중인 한 인사는 “현재 직원 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

는 중”이라며 “만일 급여를 제 때 주지 못하면 고객(장애인)들을 병원으로 보내할 형편”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미주 한국일보 10개의 지사를 통해 매일 게재되는 뉴스 중 어느 지역에 살든 공감할 수 있는 소식, 정보와 각 지역의 한인사회 뉴스를 뽑아서 4페이지에 걸쳐 게재합니다. 지역별, 지사 별 더 상세한 뉴스와 정보는 koreatimes.com 을 보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후 식당들이 살길은?

내년부터 팁 수입 관계없이 19.97달러 서비스요금 도입 움직임도

시애틀 식당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에 팁 수입을 포함하도록 허용한 9년 전 시 규정이 금년 말로 해제됨에 따라 식당업주들이 서비스요금제 도입 등 활로를 찾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친 비즈니스 성향의 조이 홀링스워스 시의원은 팁 가산 최저임금제를 무기한 연기토록 하는 새 조례안을 지난달 제기했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일주일 만에 취소해 업계를 실망시켰다.

시의회가 2015년 채택한 최저임금제는 관계주법과 달리 업소규모에 따라 팁 수입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했다. 현재 대부분의 식당을 포함한 고용인 500명 이하 업

소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5달러이다. 이들이 팁 또는 건강보험으로 최소한 시간당 2.72달러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미 시행 중인 501명 이상 업소의 최저임금인 19.97달러에 맞춘 것이다.

홀링스워스 시의원의 조례안 내용이 보도되자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식당업계가 종업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시의회에 로비를 했다거나 당국이 정상을 참작해 마련해준 9년간의 준비기간에 뭘 했느냐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한 미디어는 시의회 청문회에서 팁 가산 최저임금제를 옹호한 식당업주 명단을 공개해 1,000여명의 공격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부 식당업주들은 팁 수입으로 최저임금의 2~3배를 버는 종업원들이 있다며 이들의 최저임금은 19.97달러로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29.97달러를 받는 대기업체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팁 수입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20% 인상하면 업소의 부담은 갑자기 다섯 자리 수(만달러 단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업주는 식당운영이 렌트-인건비-재료비가 각각 3분의1씩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요즘은 인건비가 운영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그에 따라 음식가격을 올리거나 음식의 질 또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자초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식당들은 이미 오래 전에 팁 제도를 없애거나 팁과 병행해 서비



스요금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음식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돼 고객들의 불만이 크고 서비스요금 수입의 분배를 놓고도 논란

이 많아 시스템이 정착한 일부 고급 식당들을 제외한 소규모 식당들은 쉽게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범고래 가까이 드론 촬영한 영화사 벌금 3만불



영화 제작사 리버로드(River Road Films)와 드론 조종사가 범고래에 너무 가까이 드론을 조종한 혐의로 총 3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사건과 관련 없는 범고래 사진. 언스플래쉬

드론이 해양 포유류 방해, 영상 배포 금지

밴쿠버에 본사를 둔 영화 제작사 리버로드(River Road Films)와 드론 조종사가 범고래에 가까이 드론을 조종한 혐의로 총 3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캐나다 어업해양부(FOC)의 성명에 따르면, 벌금은 고래 보호 부서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리버로드는 지난 7월 밴쿠버 섬에서 고래 무리가 해변에서 몸을 비비는 모습을 너무 가까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

다. 어업해양부는 "고래들이 해안 근처의 얇은 물에 들어가 매끄러운 자갈에 몸을 비비는 것은 죽은 피부를 긁어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영화 제작사에게 벌금 25,000달러를 부과했고, 드론 영상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드론 조종사에게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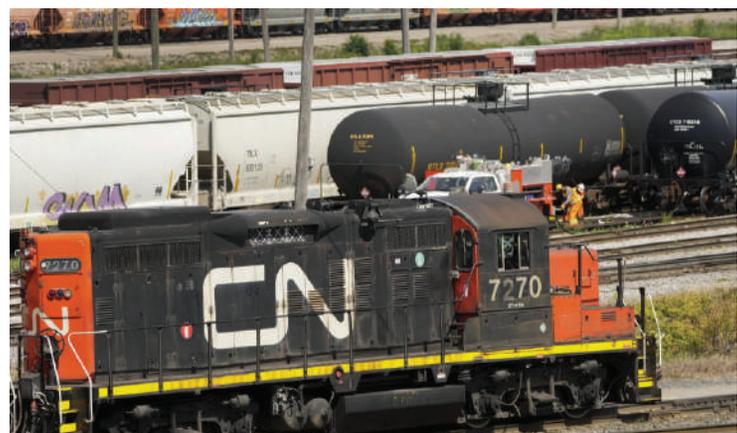
오타와의 성명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에서 범고래를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건이다. 드론이 해양 포유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최소 304m 상공에서 동물 위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업해양부는 리버로드가 2020년 범고래를 포함하여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분류된 동물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그럼에도 2021년 8월 해변에서 고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과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철도대란 우려

노조 파업 예고...사측 "직장 폐쇄"



캐나다 2대 철도에서 일하는 근로자 9천명 이상이 파업에 들어가거나 사측이 직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CP통신 자료사진

캐나다 2대 철도에서 일하는 근로자 9천 명 이상이 파업에 들어가거나 사측이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철도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캐네디언 퍼시픽 캔자스시(CPKC)의 근로자 수천 명을 대표하는 노조 캐나다 팀스터스 철도연맹(TCRC)은 최근 철도회사에 72시간 파업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이 마지막 순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2일부터 근

로자들이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조의 성명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CN철도는 합의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CN철도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캐나다 경제를 위협에 빠뜨리고, 이익을 위해 공급망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캐나다철도협회에 따르면 철도 노선은 매일 1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운송한다. 캐나다 수출의 절반 이상이 철도로 운송된다.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조선갈비

또아리 냉면

OPEN HOUR

매주 화요일
 쉽니다

월요일 - 일요일 (주 6일 OPEN)
오전 11시 - 오후 10시

TO GO & Delivery 서비스 해드립니다

딜리버리 Charge 가 있으며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런치 메뉴

갈비 닭불고기 연어구이 우거지탕 비빔밥 김치찌개 육개장 떡국
불고기 돼지불고기 갈비탕 따로국밥 된장찌개 알찌개 만두국 떡만두국

• 디너 메뉴

조선갈비 (프라임)	칠리안	갈비찜	생선전	조선전골
조선갈비 (초이스)	시배스	갈치조림	잡채	해물전골
갈비 주물럭	연어구이	은대구조림	두부전	곱창전골
소불고기	조기구이	새우전	물만두	은대구매운탕
닭, 돼지불고기	이면수	해물파전	홍어회무침	우럭매운탕



Chosun Galbee Restaurant

3330 W. Olympic Bl., L.A., CA 90019



직원 모집

- 1) 캐시어 2) 주방 쿡 하실 분
- 3) 웨이트리스 4) 매니저

* 유경험자 환영 *

(323) 734-3807

323·734·3330
323·737·3332

www.chosungalbee.com

In Washington D.C.

“발효식품 김치에 새 규정 적용해야”



메릴랜드 한인단체장들이 19일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하워드카운티 보건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메릴랜드 한인단체들이 하워드카운티 보건국의 김치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워드카운티 보건국의 과도한 단속과 강한 김치 규제에 대해 메릴랜드한미연합회(AKUS, 회장 장인훈)가 대책 마련에 나선데(본보 8월 15일 보도) 이어, 메릴랜드한인단체장들도 19일 콜롬비아 소재 메릴랜드한인회관에서 공동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AKUS의 장인훈 회장과 신선균 이사장, 남정구 사무총장, 정필도 재정위

원장을 비롯해 메릴랜드한인회의 안수화 회장과 최광희, 장두석, 백성옥 전 회장, 장마리오 식품주류협회장, 장영란 메릴랜드시민협회장, 이정숙 마이라이프재단 회장, 김용남 하워드카운티시니어센터 회장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하워드카운티에서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위생국의 일방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단속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장인훈 회장과 신선균 이사장은 “한식 대표

한인단체들 공대위 구성 시정 나서

안수화·마리오 장 공동위원장 선임

인 우리 김치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강식품”이라며 “한식당 위생검사 과정에서 김치 등 고유 음식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회장은 “발효음식인 김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당국에 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 자료를 제출하고, 일방적인 규정 적용을 완화하는 조치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한인단체들이 한식당이 당면한 문제를 종합한 후 당국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부당한 단속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안수화 회장과 장마리오 회장을 공동 대책준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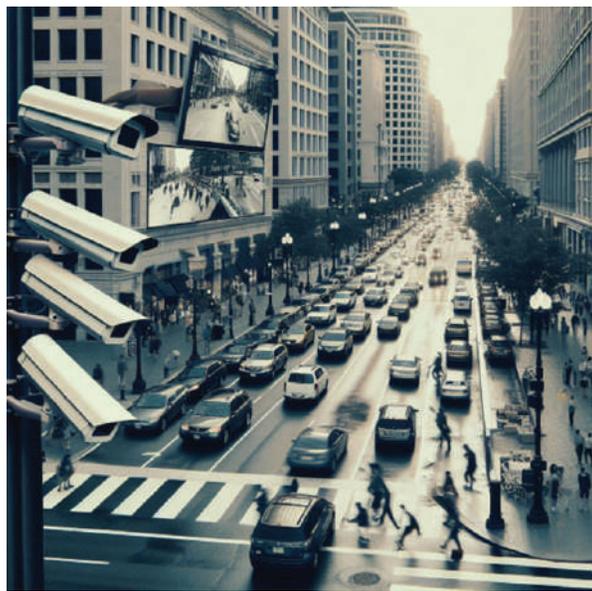
한편 회의에 참석한 김 모 사장은 업소들의 단속 현황과 고충을 자세히 설명했다.

엘리콧시티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4.2PH 산도 규정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당국 및 담당 검사관에 김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김치를 담그는 큰 용기를 씻을 큰 싱크를 완비해야만 한다는 등 한식에 대한 무리한 규정을 적용해 단속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김 사장은 “한 검역관은 음식 관리 및 위생 등에 관한 검열뿐만 아니라 당국 관할이 아닌 전기, 시설, 천장 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지적해 황당한 경우가 많다”며 “당국의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죄 꼼짝 마”...워싱턴 메트로에 감시카메라 ‘3만개’



대중교통 수단인 워싱턴 메트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무려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매체인 NBCWashington은 지난 6일 ‘메트로 지휘 센터 내부: WMATA가 3만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제하로 메트로 통합 지휘 및 통신 센터를 방문해 감시 카메라와 각종 시설에 대해 집중 소개하는 기

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메트로에는 각 역과 버스 정류장은 물론 버스와 전철 안 등 곳곳에 약 3만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통합 지휘 및 통신센터는 범죄와 사고 예방, 버스 및 전철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감시카메라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감시카메라는 실시간 현장 감시 기능은 물론 녹화 기능이 있고 녹화된 동영상은 통상 90일까지 보관되고 있어 범죄나 사고 발생 시 매우 유용한 참

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메트로 경찰 관계자는 “당신이 메트로 어디를 가든 녹화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며 “나쁜 짓을 하려면 메트로에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메트로에서는 올해 약 800건의 강도와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전년 동기에는 1,100건이 발생했다.

집 사는 것보다 렌트가 훨씬 유리

워싱턴 지역, 월 렌트비 2,295달러...모기지는 3,451달러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경우 집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렌트가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정보 사이트인 ‘뱅크레이트닷컴’은 최근 ‘전국 50개 대도시에서는 렌트가 훨씬 저렴해’라는 제하로 올해 2월을 기준으로 각 주별 평균 월 모기지와 렌트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월 평균 렌트비는 2,295달러이지만 모기지 상환금은 3,451달러로, 집을 렌트할 경우 집 사는 것보다 무려 1,156달러나 적어 렌트비 대비 모기지 비율이 50.4%로 전국에서 21번째였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렌트비 대 모기지 비율이 42.5%로 전국 29위, 볼티모어는 32.4%로 25위, 버지니아 비치는 31.9%로 36위에 각각 랭크됐다.

전국에서 렌트가 집 구입시보다 비용 절감이 가장 많이 되는 대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였는데, 이곳은 한달 렌트비는 3,024달러지만 모기지는 8,486달러나 돼 렌트비 대비 모기지 비율이 180.7%나 됐다.

샌프란시스코에 뒤이어 렌트비 대 모기지 비율이 높은 곳은 샌 호세(162.3%), 시애틀(125%), 솔트 레이크(89%), 오스틴(86.5%) 순이었고 뉴욕은 워싱턴보다 한 단계 낮은 22위(49.7%)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집을 구입할 경우 렌트로 사는 것보다 평균 약 37%나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로 사는 것이 집 구입보다 훨씬 경제적이지만 미국인 5명중 4명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라며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와이 관광업계, 여전히 마우이 산불 여파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관광업계 불씨 남아

마우이 산불 발생 1년이 되어가지만 하와이 관광업계는 여전히 산불 불씨가 꺼지지 않고 관광업 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불 피해로 인한 침체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관관광개발국(이하 DBEDT)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마우이 산

불 발생 이후 하와이 관광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인 6월 초차 마우이 방문객 수는 22% 감소했고 지출은 27% 감소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마우이 산불 발생 1년이 되어가지만 그로 인한 침체는 모든 섬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인 관광객의 전반적인 여행 수요가 6월에 약간 감소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6월의 경우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2019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DBEDT의 자료에 따르면 6월 하와이 방문객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87만2,620명의 방문객을 기록했고 방문객들의 지출은 19억 1,000만 달러로 2023년 6월 대비 4.4% 감소했다.

이 같은 방문객 감소에도 마우이의 경우 호텔 객실요금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후 섬은 방문객수가 6.3% 증가해 53만2,915명으로 지출은 5.8% 증가해 8억 9,790만 달러로 집계됐다.

카우아이의 방문객 수는 0.8% 증가해 13만0,923명이었으며, 지출은 5.8% 증가해 2억 6,5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 섬 방문객 수는 1.1% 감소해 15만6,999명이었으나, 지출은 7.5% 증가해 2억 8,3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마우이에서는 지출이 4억 5,170만 달러로 감소했고 방문객수는 21만6,065명으로 감소했다. 라나이 방문객 수는 10.2% 증가하여 6,372명이 되었지만 지출은 15.7% 감소하여 1,140만 달러로 집계됐다.

DBEDT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주요 시장에서 총 지출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미 본토 서부와 동부에서 온 방문객의 1인당 1일 지출액은 변동이 없었지만 일본시장은 약간 감소했다.

<유제원 기자>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1년에 10% 벌금**

◆ 파트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

점이하인 경우 본인의 택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 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 505	\$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 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 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친절히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공인 김예자 에이전트. 6400643@gmail.com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 수입원

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에 따른 큰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Your Situation	Income Limit	Resource Limit
Individual	\$ 22,590	\$ 17,220
Married Couple	\$ 30,660	\$ 34,360

김예자 에이전트(Kim Yeja, Lic #OF07964)는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의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Ye ja Kim(김예자)

Lic # : OF07964

562.640.0643

714.773.2939

Lee JiHoon(이지훈)

Lic # : 4276029

714.872.9377

Lic.# 0757776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내일이 더 안심되도록... 걱정이 희망이 되도록...
허브천하가 당신과 평생 동행합니다.

허/브/천/하 상업용보험

HUB

CHUN-HA
INSURANCE SERVICES, INC.

714.537.5000

91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테슬라 전기차 화재, 소방관 49명 달려붙어도 3시간 넘게 걸렸다...용인 도로서



인천 청라를 비롯해 천안 등 전기 차로 인한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에서도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 있던 테슬라 전기 차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 등 인원 49명과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완전 진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화재 현장 인근 통행을 통제된 상태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질식 소화 덮개와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신고 접수 3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10시 57분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1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돈 많으면 노후에 걱정 없다고?”...“재산 사라질까봐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소득·재산 낮으면 사회적 불안 경향
소득·재산 일정 수준 높아지면 불안 다시 증가

우리나라 노인들이 재산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내놓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재산 상실을 우려해 안전에 관한 불안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21년 만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분위일수록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불안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산 수준에 따라 노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의 내용이 달랐다는 점이다. 재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은 격차·경쟁, 불공정, 적응·도태 관련 불안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개인 안전에 대한 불안은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 집단을 재산 수준에 따라 ‘고’(4~5분위), ‘중’(3분위), ‘저’(1~2분위)로 나누고, 소득은 고(4~5분위), 저(1~3분위)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재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은 노인 전체 평균에 비해 격차·경쟁(5점 만점에 3.49점), 불공정(3.37점),



적응·도태(3.1점) 관련 불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개인 안전에 대한 불안도를 나타내는 안전 불안 영역은 3.05점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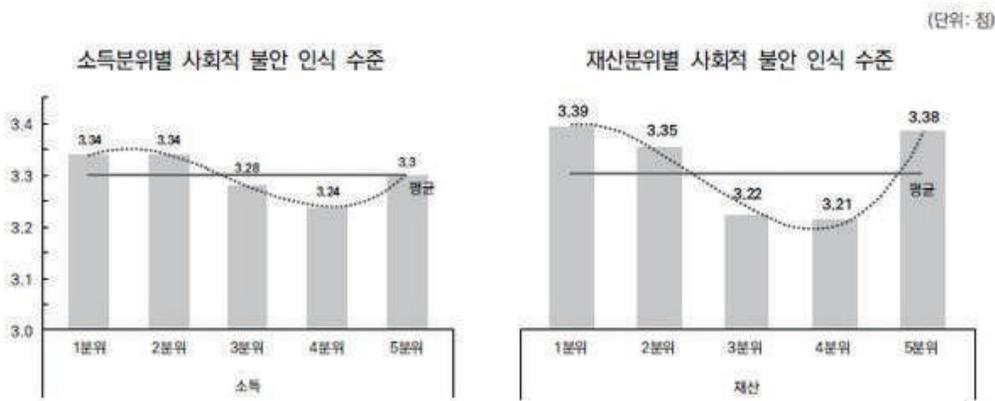
이아영 보사연 연구위원은 “많은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의 안전 관련 불안이 높은 것은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재산과 소득이 모두 낮은 집단은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적응·도태 관련 불안 수준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재산이 낮은 집단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격차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위원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적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들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일자리 등 사회적 참여 및 고용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감 감소와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향후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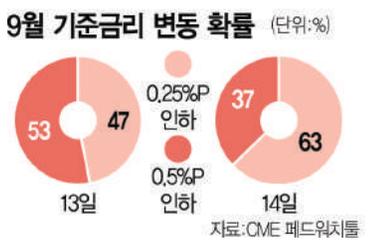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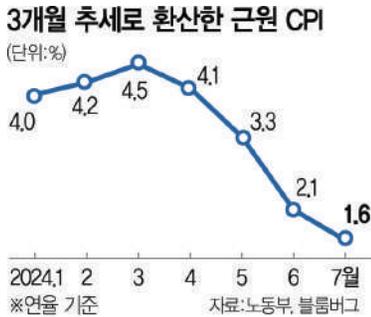
美, 인플레이션과 싸움...주거비만 남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sedaily.com에 실린 한 기사 중 미주 한인들이 공감하며 읽을 뉴스를 H매거진에 게재합니다. 더 많은 기사는 경제전문지에서 종합 일간지로 독자들에게 호평 받는 서울경제 sedaily.com을 보십시오.”

근원CPI 3개월 추세 1.6% 상승
연준 2% 목표보다 더 낮은 수준
5%대 상승 주거비 마지막 속제
실업수당청구 감소...침체 우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연방 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둔화했다.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8월 고용 보고서가 인하 폭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 2021년 3월(2.6%)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CPI 연간 상승률은 2022년 6월 최고점인 9.1%를 기록한 후 2년여 만에 2%대에 진입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올라 전월(3.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추세를 보면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근원 CPI의 3개월 연속 상승률은 전월 2.1%에서 1.6%



하락했다. 애나 윈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3개월 치 추세를 반영하면 근원 CPI는 이미 (개인소비지출인 PCE로 환산할 때) 연준의 2% 목표보다 더 낮아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품과 식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상품 물가는 7월 한 달간 0.3% 하락했고 지난해보다 1.9% 떨어졌다. 식품은 연간 상승률이 2.2%에 그쳤다. 웰스파코의 이코노미스트팀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이 둔화하면서 CPI 상승률이 3% 아래로 내려갔다”고 진단했다.

임대료 등 주거비는 마지막 속제로 남았다. 주거비는 전년 대비 5.1% 올라 전체 근원 CPI 상승분의 70%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의 임대료가 2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는 CPI 지표에 늦게 반영된다는 점을 들어 주거를 제외한다면 물가는 연준의 목표 지점에 있고 임무는 완수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9월 금리 인하 폭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룸에 따르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전날 47%에서 CPI 발표 후 63%로 뛰었다. 고용시장이 추가로 약화되지 않는 한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 제프리스의 최고이코노미스트인 모히트 쿠마르는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5% 이하로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라며 “연준은 0.5%포인트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블룸버그이코노믹스와 웰스파코는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예상했다.

다음 달 6일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인하 수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오스틴 굴즈비 시카고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고용시장

이 더 나쁜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며 “지금은 (물가보다) 고용 측면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에 이어 8월 실업률도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연준 내 빅컷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5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8월 4일~8월 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000건으로 전주 대비 7000건 줄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5000건보다 낮은 수치로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홍록 특파원>

성남시, 탄천서 ‘드론 배송’...구미동 물놀이장 등에 치킨·빙수 배달



성남시 드론 배송센터. 사진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 17일부터 10월 말까지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치킨 등의 식사류와 커피, 베이커리류, 빙수 등의 각종 간식, 애견 간식 및 응급처치세트(심장충격기) 등

을 건당 3000원이면 드론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K드론 배송 앱에 접속해 주문한 물품이 드론 배달거점에 도착하면 드론에 적재한 후 미리 설정된 안전한 비행경로로 해당 배달점에 도착한다. 배달

점 2~3m 상공에서 안전하게 투하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전달한다. 배송 소요 시간은 5분 이내다.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군내사거리 앞 탄천 농구장 △금곡공원 임시 물놀이장 △구미동 물놀이장 △

9월부터 9개소로 확대해 10월까지 운영

구미동 애견 놀이터 옆 등 탄천 내 4개소다.

성남시는 지난해 여름 전국에서 최초로 도심 내 드론 배송 상용화(유료) 서비스를 선보여 호평 받은 바 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배송에 비해 신속한데다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송에 사용되는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드론 식별관리시스템(K-DRIMS)에 등록 및 관리되며 배송 드론의 비행 상황 또한 성남시 드론통합관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성남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드론 식별장치 장착과 기준에 적합한 드론 배달거점 및 배달점 설치, 안전한 배송경로 구축 등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한다.

9월 1일부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기존 배달점 4곳을 탄천과 중앙공원 9곳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탄천에서는 △분당중학교 앞 탄천

운동시설 옆 △더 샵 분당 파크리뷰 앞 △구미동 탄천 맨발 황톳길 앞 등 3개소, 중앙공원에서는 △피크닉장 △물놀이 소리쉼터 등 2개소가 추가로 운영된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10월 말까지 제공되며, 배달 수요와 정비시간 등을 고려해 탄천 내 드론 배송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중앙공원 내 드론 배송은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만 운영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이후 성남산업진흥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스마트와 함께 드론 배송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더 확대된 한국형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해 4차산업 특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애처럼 시스루·수탉머리했던 북한 주민들 끌려가 큰일 당한다 '충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사진=조선중앙TV 화면

**北, 주민들에 시스루·수탉머리 금지령 내려
단속 걸리면 노동단련대형·교화형 등 처해**

북한이 속살 살짝 비치는 '시스루' 옷차림은 물론 긴 머리를 반만 묶어 뒤로 넘기는 이른바 '수탉머리' 모양을 '반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에게 금지령을 내렸다고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북한이 전체 주민 대상 강연에서 '수탉머리'와 '살이 보이는 옷'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에서도 화제가 됐던 김주애 패션을 "체제를 좀 먹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이며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

난주 무렵 주민 대상 영상강연이 조직됐는데, 요즘 유행하는 '수탉머리'를 금지하고 '살이 보이는 옷'을 입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RFA에 전했다.

단속에 걸리면 3~6개월의 노동단련대형에 처하며, 때에 따라 교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단련형은 한국의 사회봉사 명령

이 소식통은 '수탉머리'에 대해 "긴 머리칼을 정수리까지 묶어 올리고 앞머리는 이마를 덮어 한쪽 눈가를 가린 형태"라며 "영상을 본 주민들 대부분은 원수님(김정은)과 함께 행사장에 자주 출연하는 '현송월'을 바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RFA는 "길게 묶어 내린 머리가 뒤에서 보면 수탉의 꼬리와 닮아 '수탉머리'라는 명칭이 붙은 머리 모양은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즐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송월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 영상에 등장한 모습에서도 같은 머리형태를 보였다"고 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당에서 금지한다는 일명 '수탉머리'와 '살이 드러나 보이는 옷'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며 "(북한 당국이 제작한) 영상 속 처벌 사례는 대부분 평양에서 적발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소식통은 "원수님의 자제분(김주애)도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한 적이 있는데 왜 인민들이 입으면 반사회주의, 반체제가 되느냐"라며 당국의 조치가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부 주민들은 당에서 주민들에게 옷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로 마련해 입는데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한다)"고 읊소했다.

'엠앤엠즈' 초콜릿 '마즈', 프링글스 삼켰다...약 48조원에 인수



초콜릿 과자 엠앤엠즈(M&M's)로 유명한 미국 제과업체 마즈(Mars)가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 등을 보유한 켈라노바를 359억 달러(약 48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양사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즈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사 마즈는 엠앤엠즈, 스니커즈 등 유명 과자 브랜드를 비롯해 로열캐

닌, 페디그리 등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켈라노바는 시리얼 제조사 켈로그의 스낵 사업 부문을 지난해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업체다. 감자칩 프링글스를 비롯해 치즈잇(Cheez-It), 스낵바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츠'(Rice Krispies Treats) 등 스테디셀러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마즈의 폴 바이락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에 대해 "마즈가 미래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스낵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합병(M&A) 소식이 알려지면서 켈라노바 주가는 오전 장중 7% 넘게 급등했다.

명진(이성숙) 작가와 함께하는

미주 Digital 창작 교실

1기 수강안내

AI와 함께라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실용문 쓰기
문학적 글쓰기, 글감포착하기, 문체와 스타일 개발, 글의 구조설계,
다양한 시제 사용, 좋은 문장 쓰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름 석자와 당신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1기 공동 문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 » 수강료 : \$450(3개월)
- » 개강 : 2024년 9월 3일(화)
- » 기간 : 2024년 9월~2025년 2월(6개월)
- » 등록마감 : 2024년 8월 17일(토)
- » 수업방법 : Zoom 격주 월2회(화요일)
(PST 8:00PM~9:30PM)
*수강인원이 미달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213-820-3850(김재권) / 010-9025-0518(명진) | lifemed333@gmail.com / essaycien@gmail.com
562-217-7080(Stephen Son) : f2kstephen@hotmail.com



WEALTH
MANAGEMENT, LLC

혁신적인 부동산 투자
1031 Exchange DST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MULTI-FAMILY

100% 관리해 주는 매물

매달 받는 인컴

빠른 1031 exchange 진행

분산 투자 가능

높은 수준에 기관매물과
레버리지 가능

상속을 통한 세금 면제



**30여개 이상의 기관투자 부동산 리스트를
보유한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3333 Wilshire Blvd Suite 800 Los Angeles, CA 90010
213-215-5473 | erah@concordeis.com



SENIOR HOUSING



NET LEASE RETAIL



DISTRIBUTION CENTER



SELF STORAGE

Securities offered through Concorde Investment Services, LLC (CIS) member FINRA/SIPC. Advisory services through Concorde Asset Management, LLC (CAM), and SEC-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Insurance through Concorde Insurance Agency, Inc. (CIA) EMP Wealth Management, LLC is independent of CIS, CAM and CIA. Thi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s not individual investment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implied suitability or tax/legal advice. Potential returns are not guaranteed and could be lower than anticipated. Diversification does not guarantee a profit or protect against a loss in a declining market. There are material risks associated with investing in DST properties and real estate securities including illiquidity, general market conditions, interest rate risks, financing risks, potentially adverse tax consequences, general economic risks, development risks, and potential loss of the entire investment principal. Pictures are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pen offerings. Future offerings may vary.

‘묻지마 폭행 한인 사망피해 속출’



(사진 - 묻지마 폭행 한인 피해자)

NEWS 1: LA에서 19살 한인남성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
 NEWS 2: 잉글우드에서 한인남성 또 묻지마 폭행 사망
 한 모씨: “요즘엔 길을 걸을때도 자꾸 주변을 살펴보게되네...”
 유 모씨: “전후방이 따로없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네...”
 H매거진: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폭행하는지, 묻지마 폭행범에게 이유를 물어야 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대선후보 트럼프와 물밑거래’



(사진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트럼프)

케네디 jr.: 장관직을 주면 후사퇴하고 트럼프쪽에 줄서겠다
 트럼프 캠프: 흠...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추진해봅시다
 해리스 후보: 지난번 우리한테 왔었는데 단칼에 거절했었지...
 유권자 A: 이것들이! 정치가 무슨 거래야???
 유권자 B: 응. 정치는 거래야!
 유권자 A: 그런가??.....

‘버지니아지역 Gold's Gym에서 한인이 한인 총격 살해’



(사진 - 헬스장 총격사건 범인 하태희)

NEWS: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버지니아 지역 레스턴 Gold's Gym에서 40대한인 하태희씨가 30대한인 최형준씨 총격살해
 한인 A씨: 나도 그 Gold's Gym 멤버인데 큰일날뻔?
 한인 B씨: 한인이 한인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은 정말 이례적...
 H매거진: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웠으면 그냥 몸싸움으로하지 왜 총을 써서, 범인도... 본인도... 비극을 만느냐구!!!”

‘미셸 오바마 여사 전당대회 의상, 한인이 디자인’



(사진 - 미셸 오바마 여사 의상)

NEWS: 오바마여사의 전당대회 의상은 한인 로라 김씨가 디자인
 NYT: 의상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 1 - 날카로운 깃은 전사의 이미지
 메시지 2 - 한인 디자이너 선택은 인종차별 금지의 메시지
 의상평론가: 한국인들이 손재주가 좋고 머리까지 좋으니 옷 하나에도 많은 메시지를 담았을듯....



송봉후 앵커
 YouTube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라디오서울 AM1650 아침 6시 <스토리뉴스> 방송
 저녁 6시 <뉴스 포커스> 방송

캘리포니아주 ‘경범죄 삼진아웃제’ 폐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습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이른바 ‘경범죄 삼진아웃제’가 폐지된다.”



라디오서울 보도국은 [그때 이뉴스]라는 연재기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뉴스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는 연재 기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5일 발표된 삼진아웃제 폐지에 대한 주민발의안 제47호 찬반투표 결과, 찬성 51.8%(295만5천506표)·반대 41.5%(210만278표)로 폐지가 확정됐다.

주민발의안 47호는 가벼운 중범죄나 비폭력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을 교육·복지 등으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피해액이 950 달러(100만원) 이하인 절도·위조사기 등 경제사범, 마약 단순 소지·사용 등은 3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삼진아웃제는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규정이다. 20년 전 전국적으로 범죄가 증가하자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지

키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게다가 2년 전에는 3번째 범죄가 아무리 사소한 경범죄라도 최고 25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교도소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빚었다. 좀도둑이나 마약소지자마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는 수감자가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발의안 통과로 중범죄 판결의 5분의 1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2012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에서 20만2천 명이 중범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 중 5만8천 명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4만 명이 경범죄로 형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반대론자들은 카운티들이 교도소 예산

을 삭감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가 범죄자들이 대거 석방되면 심각한 치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분별한 주민발의안과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이법안이 캘리포니아를 10년동안 황폐화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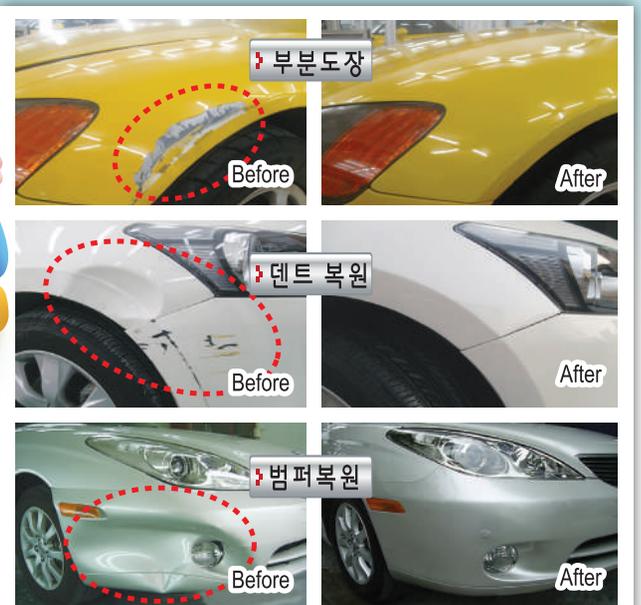
신중한 선거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증거입니다.

자동차 흠집제거전문 덴트웨이

최저(低) 가격+최고(高) 품질
그것도 단 하루만에 끝내드립니다.

각종 보험처리 환영

- 일반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 서비스 평생 보증
- 무료견적 서비스
- 최상의 복원 품질보장
- 최고급 재료 사용
- 1Day 수리 완료



DENTWAY

32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월~금 / 8:00AM - 6:00PM ◆ 토 / 8:00AM - 12:00PM

Tel. 213-383-7233 (칠이삼삼)



미주 최고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koreatimes.com에 게재된 뉴스 중에 댓글로 본 관심도 높은 뉴스를 선정하여 기사 원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고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댓글을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전체 기사를 읽고 싶으시면 koreatimes.com에서 제목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타운서 대낮 ‘묻지마 폭행’에 한인 사망

댓글 6 2024년 8월 15일(목) 미주 한국일보 미주 1면 기사 황의경 기자



한준희씨 [가족 제공]

LA 한인타운 지역 내 강력 사건 증가로 길거리 걷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안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별건 대낮에 LA 한인타운 도로변에서 꽃다운 19세 나이의 한인 청년이 지나가던 흑인 남성에게 느닷없는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 5일 만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갖고 있던 자신의 소신대로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한인 청년 한준희(19)씨의 가족들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간곡히 부탁했다.

(중략)

장기기증 수술 후 실시된 부검에서 검시국은 한준희씨의 사인을 뇌졸중 등 자연스레 발생한 뇌질환이 아닌, 폭행으로 생긴 혈전에 의한 뇌 손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겼다. 아버지 크리스 한씨는 “이틀 전 수사당국으로부터 범행 현장 주변 지역 CCTV를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연락받았다”며 “그러나 증거가 별로 없어 목격자의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한씨는 이어 “억울하게 죽은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범인을 잡는 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사건을 목격한 한인들의 제보를 간곡히 부탁했다. 제보 (213)382-9470

User_001 2024-08-15
19살 밖에 안된 환한 미소의 청년이 이런 변을 당했다는것에 우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네요. 미국에 이민와서 사는 우리 한인들에게 이런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것에 또 마음이 착잡합니다. 고인의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세상을 등진 이 착한 소년 같은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모두 다 항상 조심하시는 방법외에는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이곳 미국인것 같네요. 한인회등 단체에서 길바닥에서 축제만 벌릴 것이 아니라 한인타운 치안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User_002 2024-08-15
합법적으로 총사서 휴대하는 방법 이외에 없다.

User_003 2024-08-15
한타에 거주하는 분들 호신용 장비 착용하세요 방법이 뭐있어요 일단 방어는해야지 그렇다고 총을 차고 댕길 수도 없을 것이고.. 참 난감하네, 그래도 뭔가해야지, 기분이 좀 그러네

User_004 2024-08-15
길에서 걷기를 피하는게...최소한 스쿠터라도 타는게...자동차를 타든지....감씨는 뒷통수를 치든지 총을 쏘기때문에 호신용 후추스프레이나 전등이나 우산을 들고 다닐것...꼭 걸어야 하면.. 아니면 보복용으로 아무나 길가는 감씨를 처형하든지...한인타운이 ***** 강머시긴가 그리고 다른 것들이 민X땅원 한답시고 감씨덜 10지구 안으로 편속돼는 바람에 감X깡단 구역으로 변해서 이런 감X스타일 뒷치기가 유행한다... 아게 다 민X땅 종넘덜 탓이다...변호사 한답시고 한인타운을 흑인깡단구역으로 만들었다.

與 “국민분열 조장” 野 “친일정권 축출”...끝내 ‘쫓개진 광복절’

댓글 59 2024년 8월 16일 (금) 서울경제 sedaily.com 정치섹션 기사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경축식이 끝내 반쪽으로 치러졌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권과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 단체가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식을 진행하면서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경축식에 불참하며 사상 초유의 분열상이 펼쳐졌음에도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친일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이라 비판하며 정쟁만 이어갔다. (중략)

광복절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을 내고 당내 ‘윤석열 정권 역사 쿠데타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간토 대학살 사건 피해자 특별법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지원 배제 국가유공자법 △위안부피해자법 등 입법 추진도 공언한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자유통일당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8·15 국민혁명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경찰 추산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또 천만인운동본부는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국본과 경기도의사회는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연 뒤 종로·을지로 일대를 행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회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200여 명과 구급차 3대를 배치해 사고와 온열질환에 대비했다.

User_001 2024-08-16
여기서 웬 친일정권 축출 오늘은 선열들께서 하늘에서 다시한번 피를 토할 일 ㅋㅋㅋㅋ

User_002 2024-08-16
광복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친일매국세력이 권력을 잡으니 이승만이 뿌린 씨가 끈질기다

User_003 2024-08-16
우선 친일지역 대구경북을 분리 독립시키고 2찍노인들 고려장해야한다 솔직히 대구경북 신라애들 같은 민족도 아니자나 발음도 좀 다르고

User_004 2024-08-16
좌파놈들이 끝내 선동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쪽을 내는구나... 조선시대 간신배들 저리 가라... 당파와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은 침몰을 해도 상관도 안하네... 조선이 왜 망했는지 잘 알겠다

User_005 2024-08-16
친일파 후손들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지?



콜버트 I. 킹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오직 트럼프만 좋아하는 구호

을 폐기했고 여성의 선택권을 앗아 갔으며 대통령이 임기 중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의 의지만으로 일어난 일 아니다. 그에겐 조력자가 있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격전 주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탓에 전국 득표율에서 앞선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에서 투표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위험한 공약 실행을 도운 셈이다.

힐러리에게 패배를 안긴 요인은 지지층의 낮은 투표율이 전부 아니었다. 흑인 유권자를 겨냥한 트럼프 캠프의 대대적인 흑색선전과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힐러리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민주당 내부의 좌파 세력도 그녀의 지지 기반을 허무는 데 손을 보탰다.

여기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자. 최근 미시간 집회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카말라 해리스, 당신에게 숨을 곳이 없다. 우린 인종 학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반복해 외치자 그녀는 “트럼프의 승리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말하라”고 응수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팀이 친팔레스타인·반이스라엘 진영으로 기울었다고 몰아세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가자 지역에 발이 묶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처한 비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 든다. 그것이 트럼프와 밴스가 공유하는 목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하마스 문제를 이용해 민주당 강세 지역

인 미시간과 미네소타에 반민주당 정서를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길 꺼린 사실을 앞세워 해리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인들 사이의 분열을 활용해 권

력을 추구하는 트럼프와 그 일당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동의 선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가치를 우리 모두를 ‘자유와 기회와 정의로 충만한 미국’이라는 이상에 성큼 다가서게 만든다. 올해 선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의 이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진보·중도·극좌 등의 꼬리표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대선 후보의 이념적 성향에 집중하다 보면 되도록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내는 중차대한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올해의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만인을 위한 자유와 기회 및 정의’를 추구하는 쪽에 투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두 차례나 탄핵 소추된 중범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정치판의 철새 JD 밴스를 백악관에서 가급적 멀찍이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누가 통치하고 누가 낙선할지는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처럼 간단한 사실을 조금 더 일찍 배웠어야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라.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오래된 법적 절차를 뒤집었다. 지금의 사법부는 “보수화된 집단”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옳다. 백악관이 작성한 팩트시트가 적시하듯 법원은 민권 보호 조항

“미국인 분열로 이득 챙기는 트럼프 ‘가자 비극’도 反민주당 여론 활용 자유·정의 추구하는 쪽 투표해야”



H-Trash 버리고 싶은 것들

- 엘리베이터 진상 -

필자가 일하는 곳은 11층짜리 고층건물이다. 11층에서 일하다보니 지하 주차장 지하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11층까지 이르려면 어떤 날은 운중계(?) 한번도 스탱을 하지 않고 free pass 해서 11층 일터에 도착하는 행운(?)을 만끽하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 부분의 경우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각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리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정말 여러가지 형태의 노 매너 짓을 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진상 1: 누가 내리고 문이 닫히려 할 때 발차기 하듯이 발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갑자기 공차듯 들이 밀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진상 케이스

진상 2: 타기전부터 방송 중계하듯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해대며 타는것도 짜증 유발인데 거기다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연신나게 떠들어 대며 - Oh my God! What? What? You know~ right 을 연발하는 진상

진상 3: 문이 열려 타려는데 앞뒤 양옆으로 충분한 여유 스페이스가 있음에도 별로 덩치도 없는 인간이 딱하니 가운데 버티고 서있으면서 타기도 힘들게 층 버튼 누르기도 힘들게 하는 민폐성 진상

파킹랏 진상과 엘리베이터 진상은 여기 H쓰레기통에 계속 게재 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지명한 두 부통령후보,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 인물들
신뢰와 친밀감에 기반한 유대관계,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 기반 굳히려는 의도



이서희
캘코보험 마케팅 디렉터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했다. 바이든은 민주당 경선에서 압승을 거둬 사실상 대통령 후보 지명이 확실시 되었으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사퇴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고령 리스크에 건강문제로 인한 잦은 실수 등의 우려가 바이든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6월 27일 TV토론에서 그의 인지 능력과 기력의 문제가 의심되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졌다. 바이든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은 후보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결국 바이든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지명되었다. 해리스가 후보로 지명된 후 민주당 지지층은 집결했고 만만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는 해리스는 트럼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선택한 러닝 메이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부통령 후보자가 모두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대통령 후보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함께할 동반자로

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소개한 그녀의 러닝메이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다. 팀 월즈는 부통령 최종 후보로 거론되었던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캘리 애리조나 상원의원에 비해 약체로 평가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월즈를 선택한 이유로 상호 신뢰와 친밀감에 기반한 유대관계를 우선시 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뿐아니라 팀 월즈는 해리스의 상대적 열세를 보완해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네소타 주지사로서 중서부 지역에서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월즈로 민주당은 중서부 지역에서의 지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월즈는 군 복무, 교육자, 연방 하원의원, 주지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월즈는 미 육군 방위군에서 24년간 복무한 군 경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 안보와 군사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카멜라가 유색인종이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팀 월즈와의 조합은 인종 및 성 다양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가 선택한 JD밴스는 누구인가? 북부의 쇠락한 제조업 지역에서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 복무를 한 뒤에 예일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회고록인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러스크 벨트 지역의 몰락한 백인 노동계급이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가 되어버린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 내었다. 39세의 백인. 휴스저 출신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남성인 밴스를 러닝 메이트로 낙점한 이유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 기반을 굳히려는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준다.

선거의 두 세달은 아주 긴 시간이 다. 수많은 변수로 판세가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미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www.midwilshirehealth.com

MW
중앙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 양로병원
한인 전문 물리, 작업, 언어치료사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상주, 한인 의사 대기!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Admissions Coordinator Director of Social Services

Cell : (213) 483-9921 Fax : (213) 483-3606
676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57

차 사고엔, 차 변호사
PERSONAL INJURY

레몬법엔, 차 변호사
LEMON LAW

ALEX CHA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351.3513
info@alexchalaw.com

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추리 스파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과 크렌셔
323-954-1020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비자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재입국 허가서
- 그 외 모든 비자

영주권신청

- 투자이민
 -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
 - 사업운영을 통한 직접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 종교이민

시민권신청

- 시민권신청 부적격성 판단



이경희 변호사 Kyung Hee Lee

서울대학교 졸업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 (Intern & Externship)
Asian Human Services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회원
논문 : Human Rights Abuse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Diversity-based Affirmative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등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4646 (imin)
Fax: (213) 385-4040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 (949) 551-4646 (imin)

Website: www.iminusa.net

Email: imin@iminusa.net

UCLA 경제학과 졸업후 31년째 금융업계에 종사해온 패트릭 김 EMP 대표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력 전하며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게 희망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생소한 재무법인을 설립하여 고객분들께 기존의 은행/증권사/보험사 기능을 한곳에서 합법적인 라이선스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회사를 운영중인 EMP 통합 금융 재무 법인 회사의 패트릭 김 공동대표를 H매거진 특특 스페셜 인터뷰에서 만났다.

▶ 나는 누구인가?

EMP 통합 금융 재무 법인 회사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패트릭 김 대표입니다. 1985년도 고등학교때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UCLA 경제학과 졸업후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여 현재 31년째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하는 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생소한 재무법인을 설립하여 고객분들께 기존의 은행/증권사/보험사 기능을 한곳에서 합법적인 라이선스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개인 및 사업자들의 자산을 구축/성장/보호 하는 일들을 하며 그분들의 미국 삶을 재정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도와드리는 일을 있습니다. 미국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모든 메이저급 회사

들의 금융 상품을 각 고객분들께 전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설립 이후 매년 큰 성장을 보이며 한인 커뮤니티에서 고액 자산 전문 플래닝 회사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융부자들의 ABC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금융상품을 선택할때는 집구매 하는거 처럼/에이전트를 선택할때는 수술 전문의사 정할때처럼/ 금융상품을 키울때는 자식 키울때처럼” 이라는 철학을 항상 지키십니다. 첫째로, 집구매 할때처럼 나와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프로파일을 먼저 명확히 알고 장기적으로 살 집을 고를때 처럼 그 과정을 거쳐 같은 방법으로 선택 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재정 전문가 선정은 자격증/전문 경력 및 분

야/업계 평판 등 수술 전문의 와 병원을 정할때처럼 모든것들을 확인하시고 선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키울때는 자식 키울때처럼 오랜 시간동안 관심과 참용성을 가지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항상 잘 보듬어 주시면서 키우셔야 합니다.

▶ 가장 즐겨 찾는 식당 이름, 메뉴?

헌팅톤 피어 바로 아래있는 Sandy's Beach Shack 식당에서 시원한 생맥주와 피시 타코를 즐깁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주말에 로드 자전거 라이딩을 하며 멤버분들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며 함께 브런치하는 맛에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 요즘 좋아하는 음악, 노래?

가족 사진 (김진호-SG 워너비) 를 좋아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중년의 인생을 살다보니 무한한 부모님들의 자식에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저희를 있게 만드신 감사함을 더욱 느낍니다. 또한 저희 하는일이 가족의 “사랑 & 책임” 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라 더욱 끌리기도 합니다.

▶ 요즘 재미를 느끼는 일은?

“함께” 라는 단어에서 점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분들과

저와의 인생 여정길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고 고객분들의 행복 여정에 동참하며 기여를 하는 보람이 재미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주말 로드자전거 라이딩을 통하여 좋으신분들과 캘리포니아 바닷가 및 아름다운 풍경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재미를 느낍니다.

▶ 힘들때 이겨내는 방법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목표를 다시한번 새기는 잠시 숨고르기 하는 시간을 통해 생각전환을 하며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갖

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일적으로는 “최고/최초”의 한국인 재정 전문 법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입니다. 고객과 파트너분들이 제일 먼저 찾고 오래도록 함께 성장하며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회사로 한인 사회 중심에 자리 매김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 지인 그리고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전하며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겁니다.





“Southern California’s Most Dilicious Bargains”

“남가주에서 제일 맛있고 싼집”

LA타임즈도 극찬한 **해장촌**

한인의 입맛뿐 아니라 주류시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랑스런 해장촌돌구이!



나는 아직 가격, 맛,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에서 비교할만한 음식점을 찾지 못했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다.

아이린 S. LA 거주



해장촌은 한인타운에서 가장 독특한 BBQ집!! 돌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는 최고다!!

조 L., 아카데미아 거주



지금까지의 최고의 한국 BBQ집! 해장촌은 일반 갈비집보다 뛰어나다.

Sung Y., West LA 거주



All-You-Can-Eat Korean BBQ at the hip Hae Jang Chon!

LA Times Sep.16, 2009

We only use **USDA Choice and Prime Meat**

USDA 프라이م 차돌+USDA 초이스 양념갈비+USDA 초이스 생갈비+프라이م 블랙 앵거스 소불고기+프라이م 블랙 앵거스 매운 소불고기+프리미엄 블랙 앵거스 허밀+매운 돼지불고기+천겹살+캐나다산 생삼겹 (두껍게 또는 얇게)+닭불고기+매운 닭불고기+쭈꾸미+새우 오징어 불고기+막창구이+매운 소벌집양+핫도그 +계란찜+김치부침+흰밥 또는 볶음밥+된장찌개+떡보쌈+무쌈+버섯+양파+샐러드

- LUNCH : 11am~4:00pm on Weekdays, Except Holidays
- DINNER : 4:00pm to Closing Weekdays, All day on Weekends and Holidays.

무제한도 따쳐보고가자!

LUNCH **\$37⁹⁹** +TAX

DINNER **\$43⁹⁹** +TAX

33 가지 다양한 메뉴



마무리는
기가막힌
돌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격은 내리고, 양은 더 푸짐하게!
고추장양념쌈밥 삼겹살 or 오징어

+된장찌개 **\$21⁹⁹** +TAX

해장촌 특선 런치 \$17⁹⁹ +TAX

신내해장국/ 살코기 해장국
묵은지 김치찌개

입맛 없을땐, 이거 하나면 끝!
열무양푼비빔밥 +된장찌개

\$17⁹⁹ +TAX

해장촌돌구이
haejangchon.com



HaeJangChon Dolgoori Restaurant

213.389.8777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목 11am-12am 금-토 11am-2am *일요일은 쉽니다.



용자 나라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주택구입 / 재용자 / CASH OUT / Home Equity Line of Credit 전문

집 용자는 저희가 제일 잘 합니다!

용자가 정말 쉽더군요.

Loan Fee 안받습니다

‘마지막’ 재용자 기회!

**이자가
너무 좋아졌어요**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주택구입 재용자

Cash Out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용자는 다 됩니다.

비상자금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Home Equity Line of Credit

\$500,000 까지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용자는 다 됩니다.

**집만
가지고 있는데**

(급한 Hard Money)
7일 내 펀딩

No Credit Bad Credit

다른 곳에서 용자 거부된 분
(외국인도 한국에서 여행온 분도)
용자는 다 됩니다.

용자 나라

CENTRAL FINANCIAL GROUP INC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213) 388-5600

Email: ak4989@gmail.com

3700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2nd Office: : 305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NMLS#2318997



리처드 김

- CSUF 사회학과 졸업
- 다음 행사문학, 미주 행사문학 카페지기
- 페이스북 <오늘의사색> 작가
- SAG AFTRA 배우 조합 회원

“할리우드 배우들과 감독과의 관계”

명 배우들은 고된 반복 촬영을 하면서도 요령 피우는 모습을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보질 못했다. 항상 성실하게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이 필드에서 일하는 크루들과 유명 배우들은 이 일을 너무나 사랑해서 피곤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완벽한 대본 암기에 연기를 소화해 내려면 촬영이 고될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만족하는 수준의 싸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지시를 전적으로 따른다.

그렇게 유명 배우가 되었어도 어떻게 감독의 지시를 아무 말없이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배우들은 감독과 절대적 신뢰 관계가 없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잘 알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0일과 11일에 말리부 유명 랜치에서 촬영을 새벽까지 했다. 특히 목요일 새벽 촬영에는 주연 배우가 조연 배우와 수영장 안에서 거칠게 몸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추운 새벽 날씨에도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존경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할리우드에서 인지도 있는 배우가 되려면 어떤 촬영이라 하더라도 열연을 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가 될 자격이 없다.

유명 배우가 되려면 어떤 힘든 배역일지라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연기력이 있어야만 할리우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왜 유명 배우들이 촬영이 없는 비



지난 7년동안 백그라운드 배우 일을 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촬영은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The Call of the Wild” 영화 촬영

77세의 해리슨 포드가 110도의 찌는 더위에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14시간 촬영을 하는 노장 배우의 연기에 대한 열정에 감동

내가 지난 7년동안 백그라운드 배우 일을 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촬영은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The Call of the Wild” 영화 촬영이었다. 2020년 개봉 전 2019년 8월 산타 클라리타 랜치에서 110도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 겨울 배경으로 아주 두꺼운 옷 두 겹을 꺼입고 무거운 짐까지 지며 촬영을 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일은 그때 당시 해리슨 포드의 나이가 77세였음에도 110도의 찌는 더위에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14시간 촬영을 하는 노장 배우의 연기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할리우드는 아무리 유명 배우라 하더라도 감독의 반복 지시에 절대 순종하며 겸손하게 촬영에 임한다.

마임 연기를 하는 백그라운드 배우들도 단순 반복 촬영을하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요령을 피우는데 유

수기에 그렇게 운동을 끊임없이 하며 체력을 만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강한 체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장시간의 반복 촬영을 체력적으로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할리우드에서 동양인 배우들이 연기를 아무리 잘 해도 주연 배우로서 오래 버텨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체력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리우드의 배우들과 감독 및 모든 크루들은 육체와 정신을 쓰는 힘든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고된 촬영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은 영

상 제작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리우드에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감독과 주연 배우들에게 존경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단순한 백그라운드 배우 일도 1년이 지나면 80%가 그만 두는 현실인데 아무리 유명 배우들이 높은 개런티를 받고 촬영을 한다 할지라도 이 힘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리우드는 자유롭게 일하는 장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한 곳이다. 자신이 맡은 임무를 감당해 내지 못하

면 언제든지 도태되는 곳이 할리우드다.

할리우드가 선두적으로 전세계의 영상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중심축에는 감독을 위시해서 주연과 조연과 백그라운드 배우 및 크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촬영을 하며 세계 영상 산업의 자존심을 지키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할리우드 모든 관계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아세요 이 말?
이렇게 깊은 뜻이~

호로자식

정말 그 인간은 호로자식이다!

배운 것 없이 막 되게 자라나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오랑캐호, 사로잡을 로 의 한자로 구성된 호로는 미움을 부르는 오랑캐를 잡는다는 뜻에서 온말인데 홀의자식-호레자식-후레자식-호로자식으로 말이 바뀌어 전해온 것이다.

자식이라는 말은 아들자에 숨쉴식의 한자어로 자손이 되는 아이라는 뜻의 단어다.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한마디

인순고식 因循姑息

인할 인(因), 좇을 순(循), 시어미 고(姑), 숨쉴 식(息)

낮은 습관이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을 취함을 뜻하는 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방식에 얽매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기도 한다.



클리퍼스 구단주 스티브 발머의 꿈은



문상열
스포츠전문기자

고픈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건설에 1천 억원이 소요됐다면 난리가 난다. 쓸데없는데 돈을 퍼부었다는 기사 논조와 시민 단체의 시빗거리를 불러 일으킨다. 최근에 개장된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 파크 1666억 원(2016년 개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994억 원(2014년)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시카고 리글리 필드(1914년 개장)는 2009년 단계적인 구장 리노베이션을 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5억 7500만 달러(한화 7788억 원)다. 리글리 필드의 리노베이션 공사비만으로도 KBO리그 구장 4개 건설이 가능하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도 크지만 스포츠를 대하는 인식 자체부터가 다르다.

8월15일 잉글우드에 또 하나의 명소가 등장했다. NBA LA 클리퍼스의



김어준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의 건설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졌다고 성토했다. LA 클리퍼스의 홈 인투이트 돔은 고척돔 10개 만들 수 있는 거액이 들어간 구장

지난 3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서울 시리즈가 벌어질 때였다.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한 야구 기자와 진행자 김어준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의 건설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어졌다고 성토했다. 미국의 스타디움, 아레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무지에서 비롯됐다.

실제 고척돔은 한국 실정으로 공사비가 크게 소요된 것은 논란거리였다. 2천억 원에 조금 모자라는 1946억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용도를 수 차례 변경해 정상적인 돔 구장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다. 무늬만 돔구장일 뿐 미국 실내체육관 아레나보다 못하다. 싸구려 돔인 MLB 탬파베이 레이스의 트로피카나 필드와 비슷하다. 2017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개장된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 코트 체이스 센터의 건설비만 14억 달러다. 1조 8690억 원이다.

한국은 스포츠 문화가 성숙돼 있지 않은 터라 구장 건설도 경기장 수준에 그친다. 경기장 시설물인 스타디움, 실내 체육관은 팬들의 레저 및 휴식 공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구장과 아레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

홈 인투이트 돔(Intuit Dome)이다. 명칭은 돔이지만 실제로는 LA 타운타운의 클럽도 닷컴 아레나나 다름없다. 관중 수용 인원이 18,000명이다. 스티브 발머 구단주는 2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아레나를 건설했다. 한화 2조6710억 원이다. 고척돔 10개 만들 수 있는 거액이다.

Intuit는 북가주 실리콘 밸리의 파이낸셜 소프트웨어 회사다. '인투이트 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3년 동안 5억 달러를 지불한다. 인

투이트 돔 개장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스포츠 메카는 잉글우드로 자리 이동을 했다. 미국 최고 인기 종목 NFL 램스와 차저스의 기존 홈 소파이 스타디움과 함께 NBA 홈 코트까지 들어섰다. 소파이 스타디움은 2028년 LA 올림픽 개폐회식 메인 스타디움이고, 인투이트 돔은 올림픽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구기 종목 남여 농구가 열릴 예정이다.

클리퍼스로서는 LA 레이커스와 공유한 클럽도 닷컴 아레나의 한 지

붕 두 가족에서 벗어나면서 완벽한 홈 코트를 갖게 됐다. 클럽도 닷컴 아레나의 소유주는 Anschutz Entertainment Group(AEG)다. 레이커스는 임대로 사용할 뿐이다. AEG는 MLS LA 갤럭시 지분을 50% 갖고 있고, 스타디움과 아레나 등 스포츠 인프라에 특화된 그룹이다.

인투이트 돔은 스티브 발머 구단주 소유다. 운영은 Murphy's Bowl LLC다. 이 회사 소유 역시 발머다. 미국 스포츠 팀이 스타디움이나 실내 구장을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다. 카운티, 시 등과 공동 투자에 관리를 스포츠 팀이 맡는다.

발머(68)는 빌 게이츠로 상징되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출신(2000-2014년)이다. CEO에서 물러난 뒤 2014년 도널드 스텔링의 인종 차별 발언 파문이 커지면서 클리퍼스를 매입했다. 부동산 거부 스텔링 전 구단주는 NBA 애덤 실버 구단주의 중용으로 구단을 매각했다. 커미셔너의 강제 매각 중용인 터라 구단의 가치는 시장가보다 쌀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클리퍼스는 만년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우승은 커녕 NBA 파이널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발머는 시장가보다 훨씬 비싼 20억 달러에 매입했다. 경쟁자가 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재미있는 점은 소프트웨어 오디

오 네트로 큰 돈을 번 델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반(66)도 시장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 2000년 역시 부동산 개발업자인 로스 페롯 주니어로부터 2억85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매버릭스도 만년 하위권 팀이었다. 큐반은 지난해 구단의 69% 지분을 팔았으나 경영은 하고 있다.

농구 명문 인디애나 대학 출신의 큐반은 하위팀 매버릭스를 매입한 뒤 소프트웨어 경영자답게 라커룸을 최첨단으로 조성했다. 2000년 매입 후 11년 만에 매버릭스는 구단 창단(1980년) 이래 처음으로 NBA 챔피언이 됐다. 미국 부자 랭킹 100위권에 포함되는 두 구단주는 매우 소탈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구단 사랑에 열정이 넘친다.

발머 구단주는 클리퍼스 매입 1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다. 가장 비싸고 최첨단 아레나다. 그러나 아직 클리퍼스는 파이널 진출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 2024-25시즌에는 포워드 폴 조지(필라델피아 76ers)가 떠나 전력의 플러스 요인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과시한 발머의 NBA 구단주 변신이 언제 결실(우승)을 맺을지 매우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

moonsytxas@hotmail.com





켄PD

YouTube 채널
켄PD의 우연한 행복

시애틀에 온 나그네는 하룻밤 묵고 가이소



1988년 한국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 온 지 몇 년 안 된 상황에 열심히 돈을 모아 산 첫 중고차로 친구와 함께 미국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미국 온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지만 늘 가본 곳은 LA 인근뿐, 저 산 너머로는 뭐가 있을까? 50개 주는 다들 어떻게 살까? 한국에서 외화로 보던 '초원의 집' 같은 미국 시골은 아직 남아 있을까? 한참 호기심이 많던 나 이 우리들은 차를 끌고 미 서부를 방황하기 시작했다.

맞다 여행이란 표현보다는 방향이 더 적절한 당시의 우리의 모습이였다.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주유소에서 \$2를 주고 산 미국 지도를 보고 그중 큰 도시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LA의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미 서북부 끝자락에 있는 시애틀이란 도시를 향했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아는 도시이지만 당시만 해도 시애틀은 처음 들어보는 도시 이름이었고 그나마 지도에 크게 표기된 덕분에 아무 이유 없이 목적지로 정해 버렸다. 지금은 미

국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LA 광역시, 뉴욕 광역시, 시카고 광역시 그다음으로 시애틀과 타코마 광역 지구가 4번째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당시에는 미국 이민을 오면 LA 아니면 뉴욕이었다. 지금도 LA 지역은 압도적인 한인 숫자로 뉴욕의 2배 가까운 한인들이 살고 있고 당시에는 두 도시를 제외하고는 한국인들을 만나다의 건 힘든 일이라 생각했다. 물론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 외로 미국 지방 곳곳에 여러 사연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건 차후의 일이었다.

시애틀 인근에 와서 갈증에 음료수를 사고자 동네 마켓에 들렀다. 카운터에 있는 분은 직감적으로 한국인이라 생각이 들었다. 당시 LA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던 비즈니스는 마켓과 세탁소, 워낙 많이 보던 모습이라 대수롭지 않게 마켓을 둘러보며 간식거리와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다. 마켓 주인아저씨가 우리를 열심히 꿰뚫어 본다. 왜지? 우리가 물 건이라도 훔치게 생겼나? 약간은 불편한 시선을 뒤로 한채 물건을 고르고 카운터에 계산을 부탁한다.

주인아저씨가 소심하게 물어본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지요?) Korean이라고 대답하자 아저씨의 심각했던 모습이 미소로 바뀐다. "한국분이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LA에서 왔다고 하고 미국을 여행 중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LA에서 워낙 많은 한국사람들과 지내왔던 차라 별 감흥이 없던 우리와는 달

리 주인아저씨는 한국인들 만났다는 게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었나 보다.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시는 아저씨, LA는 한국사람이 많냐? 짜장면 파는 곳은 있냐? 거기도 한국인 마켓 주인들이 있냐? 인종차별은 어떤가? 등등. 가게는 뒤로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시애틀에 정착한 주인아저씨로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LA의 이야기는 고국 이야기만큼이나 궁금했을 것이다.

"우리 집이 가까운데 오늘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도 먹고 잠도 자고 가요" 처음 본 우리에게 선뜻 묵고 가라고 제안을 하신다. 조선시대 한양길 가던 선비도 아닌데 나그네는 묵고 가라니? 아저씨의 제안에 한걸음 뒤로 주춤했다. 나중에야 그 마음이 와닿았지만 갑작스런 제안에 그때는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심스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

아저씨는 매우 실망한 눈치였다. 마켓을 나서는데 바리바리 음료수와 간식 등을 챙겨 주신다.

아저씨를 뒤로 한채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서야 어릴 때 백과사전에서 보던 '스페이스 니들'이 있는 곳이 시애틀임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며칠간 서운해하시던 마켓 주인아저씨가 생각이 났다. 그냥 그 집에서 하루 묵고 갈걸 그랬나? 하지만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그 마켓을 도로 찾아가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70년에 LA한인타운도 한인들이 귀하던 시절 친구를 만들고자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동년배쯤 돼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서 친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렇게 만나서 몇십 년째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몇 분 봤다.

요즘 같으면 낯선 사람이 식당에서 말을 걸면 의심부터 할 것이다. 이상한 종교 포섭인가? 혹은 사기라도 치려는 건가?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

이다.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고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교민 사회에서도 종종 들려오는 뉴스이다.

사람이 귀하면 만남도 귀하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게 됐다.

허허벌판 사막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움 보단 두려움이 먼저라고 한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알게 되고 더더욱 어떤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보다 더 큰 위안이 될 수는 없다고 한다.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투사는 아니지만 품 안에 태극기라도 품고 있다가 여행하면서 만난 분들께 나눠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미주 한인 260만 명의 시대이다. 교민은 흔해졌지만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던 그 시절의 이민야사(移民野史)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musicplaza.com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뮤직플라자 (213)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안세영의 “맞다iero 드러와, 개저씨들아”

안세영은 선수 관리·운영 시스템과 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촉구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협회와 코치진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한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파문이 엄청나다. 22살 짜리 안세영이 대한 배드민턴협회(협회)를 상대로 쓴 오발탄은 대형기업 하이브를 상대로 필마단기로 대든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연상케 했다. 안세영은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통해 협회의 복종 강요 규정과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개인스폰서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안세영은 협회를 향해 선수 관리·운영 시스템과 처우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는데, 개인 스폰서 계약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즉 개인 후원 계약을 받을 때 일일이 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개인 후원 계약을 마구 허가하면, 협회 메인 스폰서의 후원 규모가 줄고 그러면 대표팀 운영과 유소년·생활체육 관련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안세영과 같은 스타 선수를 제외한 비인기 종목의 특성상 공식 후원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용품으로 전체 대표팀 선수들과 주니어 선수들을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세영도 이런 쌍팔년도 시스템 아래 ‘월드클래스’로 성장했으나, 대의를 위해 안세영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세영은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즉, 안세영은 대신 개인 후원 계약과 관련해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세영은 또한 선수들이 운동만으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세영은 또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

더구나 안세영이 중학생때부터 지난 7년간 대표팀 선배들의 빨래, 청소 등 잡일을 도맡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협회의 구시대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도 튀어 나왔다. 대표팀 코치진은 이런 잡일 맡기는 것을 ‘관습’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야말로 21세기에 88년도 마인드를 가진 개저씨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앞날을 막고 있다. 프로야구팀은 선수들의 기구들을 수선하고 유니폼을 세탁하는 스태프가 따로 있다. 그걸 일반인도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가 후배라는 이유로 맡긴다는 공포영화같은 호러 스토리가 올림픽의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의 부모는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 특히 안세영 측은 대표팀 선수촌 내 생활 개선을 요구했다.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됐는데 이후 안세영은 7년 내내 대표팀에서 잡일을 도맡아 왔다. 선배들의 라켓 줄이 끊어지면 교체하는 것을 비롯해 방을 청소하는 것은 물론 일부 선배의 빨래까지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안세영 측은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잡무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고 협회에 호소했다고 한다. 협회는 이런 면담 내용을 대표팀에 전달했지만, 대표팀 코치진은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의 답변인가.

안세영은 또한 선수들이 운동만으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세영은 또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

받는 계약금·연봉 상한제도 지적했다. 한국실업배드민턴 연맹은 신인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3년 차까지는 이전 연봉보다 7% 이상 인상할 수도 없다. 계약금 역시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아니 자본주의 나라에서 이런 제한이 왜 있는 지 궁금하다. 안세영은 “차별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꺼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 할 수 있다”며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폐쇄하는 조치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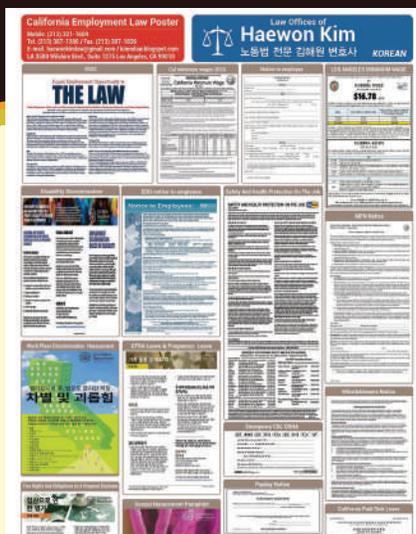
안세영의 경우를 보면 안세영도 체리 맥과이어나 스캇 보라스같은 슈퍼 에이전트가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회는 21세기로K팝 등 모든 분야에서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유일 하게 스포츠 분야는 최근 홍명보 감독 사태를 보더라도 아직도 88년도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Haewon Kim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NGLISH



SPANISH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김해원 변호사 무료 배포
- 최신 임금·상해·병가 정보

●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2024년도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신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PDF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합니다.

● 노동법 포스터의 온라인 배부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아웃도어 유니폼 North Face



정재윤
방송인, AdSense 대표

1966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톰킨스 부부가 스키장비와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개업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과 철저한 연구를 통해 만든 제품-품질, 성능 면에서 소비자 만족

몇 해전에 열흘동안 유럽을 다녀 온 적이 있다. 유럽은 처음이라 유명 관광지 위주로 다니다보니 한국에서 여행 온 단체 관광객들을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런데 어디서든 한국 관광객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 바로 그들의 옷차림새 때문이었다.

색깔은 다르지만 유니폼처럼 모두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의 시선에 나는 더 신경이 쓰였다. 유럽을 다녀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럽 현지 가이드가 쓴

글인데 “해외 여행시에 아웃도어 등산복 차림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였다. 산에 오르는 것도 아닌데 알록달록 오색의 등산복을 입고 온 한국 관광객들을 인솔하여 성당이나 문화유적지 같은 곳을 드나들기가 무척이나 민망하다는 것이였다. 현지인들의 굵지 않은 시선도 문제이

고, 쉽게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웃도어 운동복 브랜드는 단연 <North Face>이다. 가격도 엄청나게 높고, 미국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추운 겨울, 청소년들이 교복 위에 입는 방한복은 거의 다 North Face 이고, North Face를 못 입으면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성인들도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좀 있어 보려면 North Face를 입어야 한단다. 그러나보니 세계 여행을 떠날 때도 자랑스럽게 North Face로 통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하늘 높이 떠버린 North Face는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

1966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톰킨스(Duglas Tompkins) 부부는 스키장비와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개업했다. 암벽 등반가들이 자주 몰리는 북가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부근에 자리한 가게라 많은 암벽 등반자들이 단골이었다.

매출이 늘어나자 톰킨스는 유럽의 등산 장비들도 수입해 판매했고, 2년 뒤에 케네스(Kenneth Hap Klopp)를 파트너로 영입하면서 경영을 맡기게 되면서 취급 상품의 카

테고리도 아웃도어 모든 분야로 확산했고, 퀄리티와 디자인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각진 모양의 텐트라는 통념을 깨고 파격적으로 둥근 텐트를 처음 개발한 곳이 바로 North Face 다.

North Face의 제품들은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과 철저한 연구를 통해 만든 제품이기에 가격, 품질, 성능 면에서 소비자들을 만족 시키기에 충분했고, 그 여세를 몰아 시장을 전세계로 확대하며 원산지인 미국보다 더 각광을 받게 되었다.

* North Face: 더글라스 톰킨스와 케네스 클롭이 좋아했던 Northern Hemisphere (빙하로 된 산)의 가장 힘든 등반 루트인 북벽(The North Face). 로고는 요세미티 계곡의 Half Dome의 모양에 알프스의 3대 북벽(아이거, 마터호른, 그랑쥘라스)을 혼합하여 만들었다.



볼 빨개지는 이야기

흥분시 남자와 여자의 차이 <1>

남녀가 관계할 때에 흥분을 하게 되는데 같으면서도 다른 섹스의 느낌과 반응을 알아보자.

남녀 모두 섹스에서 흥분할 때 유두가 곳곳하게 발기된다. 거기에 더해 팽창되기 까지 한다. 가슴과 얼굴의 근육도 긴장된다. 얼굴과 목에 피가 몰리며 붉그스름해지는 흥조 현상이 나타난다. 혈압이 오르며 심장박동수는 180까지도 올라간다. 절정 이후 여자의 유두는 풀리지만 남자는 한동안 지속이 되는 차이가 있다.



화장실에서 읽으면 더 재밌는 아재아재 개그

*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말은?

- 다이쥬부

* 스님이 중을 치면?

- 땡중, 종당

* 왕의 아버지는?

- 부킹

* 와이프가 신발을 사오면?

- 슈바이처 (shoe by 처)

*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야채 씨앗은?

- 오이 씨

* 초밥이 이에 끼면?

- ESC (이에스시)

* 흑인이 귀여우면?

- 깜찍이

* 평화주의자가 쟁반짜장을 시킬 때 하는 말?

- 전 쟁반대



나는 자존감이 높은 걸까? 자아애성 인격 장애자인 걸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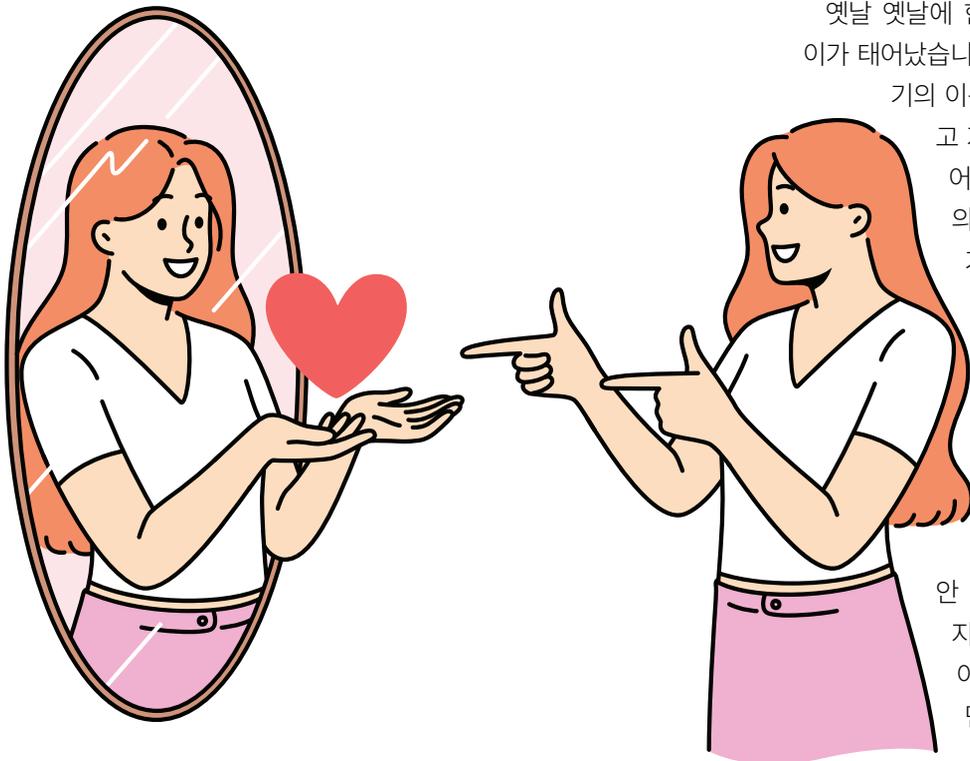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겉으로는 겸손한 듯 행동해 덕이 있는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적으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자신은 자존감이 높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 성향이 지나치게 높아 인격 장애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줍고 조용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듯 보이지만, 사실 성격과 상관없이 자신감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겉으로는 겸손한 듯 행동해 덕이 있는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적으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매우 훌륭한 인격인 것으로 인식해, 자신의 자존심을 대놓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자기애, 교만함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자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혼돈을 겪는 분들을 보면, 자존감과 자기애, 자존심과 자신감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생긴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의 결여는 인간 관계의 실패로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한 많은 인생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신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자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혼돈을 겪는 경우는
자존감과 자기애, 자존심과 자신감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생긴 결과

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참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강철 멘탈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자존감과 우울증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자존감과 자기애성 인격 장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자신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혹

시 자기애성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봄으로써 자아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마을에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기의 이름을 나르시서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르시서스의 어머니는, 천리안을 가진 테레시아에게 아들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나르시서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랫동안 장수하며 잘 살겠지만, 자신에 대해 알아버리는 날이 온다면 이 아이는 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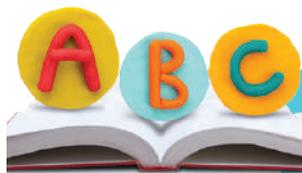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나르시서스는 우물가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에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르시서스는 자기 얼굴을 계속 보기 위해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계속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짝사랑하며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우물가를 떠나지 못한 나르시서스는 결국 우물가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이 나르시서스가 죽은 자리에 꽃이 한송이 피었는데, 사람들은 이 꽃의 이름을 나르시서스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꽃을 수선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이 이야기는 자기애성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나르시스트>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음호에계속>
ssung0191@yahoo.com



외워두면 좋은 오늘의 영어 단어

Gratuitous

[grə'tju:ətəs]

1. 무료의
2. 무상의
3. 이유[원인, 까닭]없는
4. 불필요한

Gratuitous Meal Services for the Elderly People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 gratuitous insult
까닭 없는 모욕



내몸에 좋은 H 꿀 Tip

콩 B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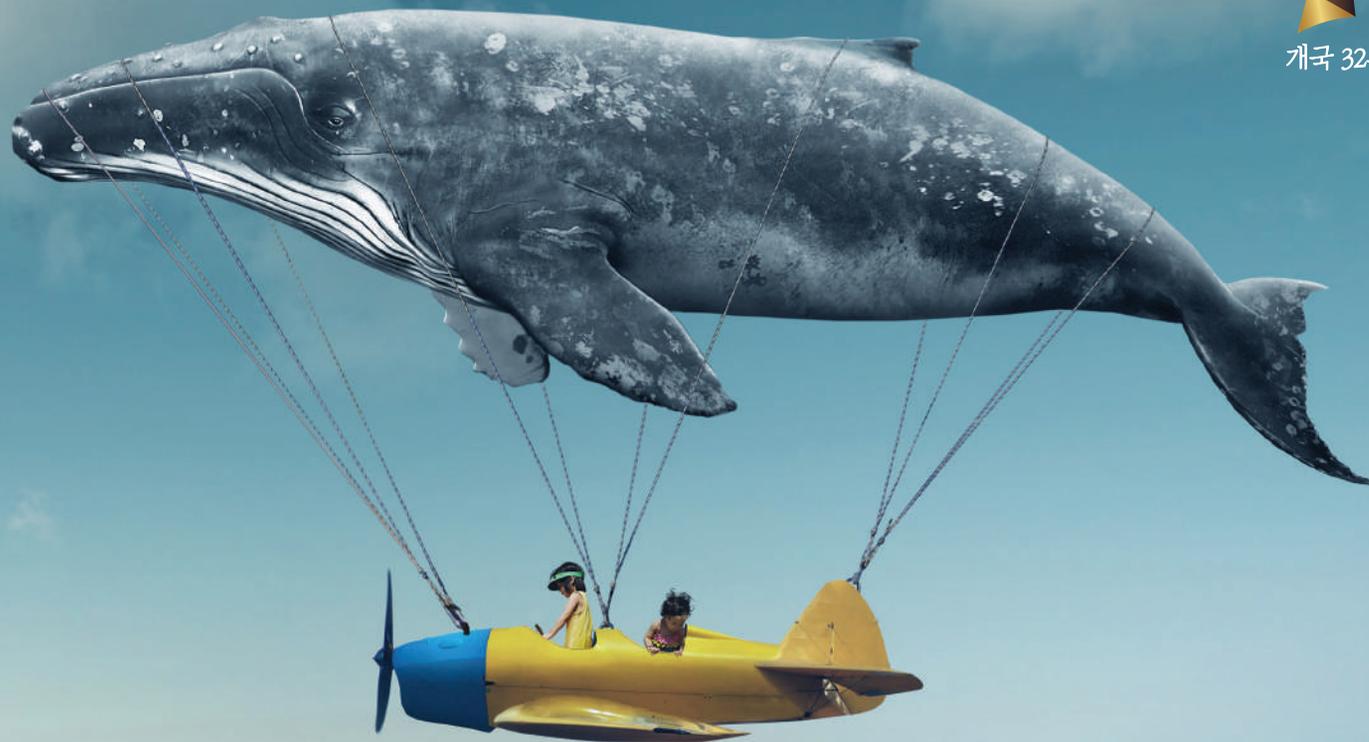
콩은 세계 최고의 신데렐라 작물로서 건강식으로 주목 받는 밀레니엄 식품이다.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의 양은 농작물 중에서 최고로 많으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구성 아미노산의 종류도 육류에 비해 손색이 없다. 콩에는 비타민 B군이 특히 많고 A와 D도 들어 있으나 비타민 C는 거의 없다. 그러나 콩을 콩나물로 재배할 때는 싹이 돋는 사이에 성분의 변화가 생겨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이다.

콩은 항암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는 식품이다. 특히 검은콩 껍질에는 노란 콩에는 없는 글리시테인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콩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그 칼슘이 많은 콩 제품에는 두부, 삶거나 볶은 콩, 갈숨 강화두유 등이 있다.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창의력은 고래도 날게 한다!

광고대행사 CPL은 27년 동안 날선 전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클라이언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고래처럼, CPL은 한계를 뛰어넘는 참신한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합니다.

CPL과 함께라면 당신의 비즈니스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CPL

ADVERTISING

Est.1997

온·오프라인 광고 문의하세요

www.cplad.com email: info@cplad.com



김준철

-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쿨투라> 미주지사장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 부시다>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슬픔의 모서리는 뭉뚱하다>
- 전자 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짠>

개가 떠났다. 우리는 그 개가 그립다.



얼마 전에 짧고 가볍지만 흥미롭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을 한 권 만났다. 지난 7월 한국에서 출간된 리디아 데이비스가 쓴 '못해 그리고 안 할 거야'(Can't and Won't)라는 이야기집이었다.

미국에서 독창적인 지성을 뽐내는 작가로 전통적 서사 장르를 넘나들며 대담한 형식의 파괴로 자신만의 매력으로 이미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작가이다.

시인지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모호한 경계선에서 이야기라는 단순성에 집중하는 작가의 진면목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신작이다.

서두에 소개한 '개가 떠났다. 우리는 그 개가 그립다.'는 '못해 그리고 안 할 거야'라는 책에 담긴 122개의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책을 펼쳐 만난 '개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아래와 같았다.
'개가 떠났다. 우리는 그 개가 그립다. 이제 초인종이 울려도 아무도 짖지 않는다. 우리가 늦게 귀가해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

는다. 여전히 집 안 곳곳에 녀석의 흰 털이 발견된다. 우리는 그 털을 줍는다. 버려야 한다. 하지만 그 털은 우리에게 남은 녀석의 전부다. 우리는 털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똥한 소원이 있다. 개털을 충분히 모으기만 하면 녀석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개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끝난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몇 줄 안 되는 이 짧은 글 안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덤덤하게 기르던 개의 죽음을 전달하는 문장들. 그 공백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 아직은 만나게 되는 그 미세한 흰 털의 존재. 그 가볍고 보잘 것 없는 개털을 줍고 버려야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하나. 이게 녀석의 전부라는 대목.

필자는 순간, 울컥 눈물이 차오름을 느꼈다.

그리고 영똥한 소원이 간절한 소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내용이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전달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버렸는지 혹은 간직하며 영똥하지만 간절한 소원을 가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책 제목인 '못해 그리고 안 할 거야'라는 말 역시 작가가 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 게으른 듯한 이 말 역시 또 다른 생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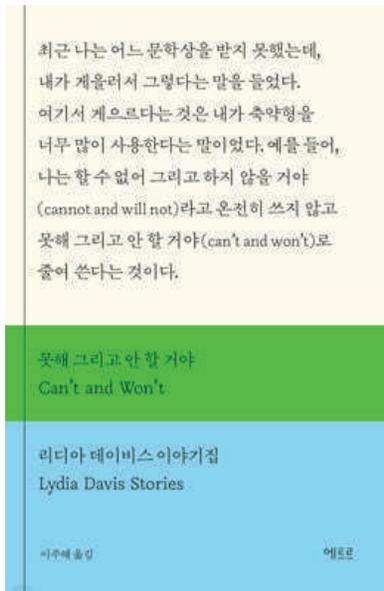
이 단순하게 던져지는 한마디가 어떤 물결을 만드는지 역시 이 책을 읽는 내내 생각하게 되는 화두가 될 것이다.

treeandmoon2022@gmail.com



김준철의 한 문장의 생각 코너 소개

영화, 시, 소설, 드라마, 신문, 잡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장들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달, 짓다

김준철

나의 어머니,
자꾸 떠나랍니다
숲의 그늘이 나의 다리를
잘라 문던 악몽 속에서도……

내게는 더
간절했는지 모른다
떠나야 할 때 남아 있는……
쉬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도 숨기도 떠났다
스스대는 바람의 길을 쫓아
잠든 개조차 놓아두고

어머니,
언제나
갈 수 있을 때는 가야만 했습니다

잘린 다리로 숲을 기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마지막 터널을 돌아 나가고 있었다
그 불덩이 같은 삶 속에서
몽롱하게 감겨 오는 달을 바라보며
당신의 배꼽을 훑고
나는 개처럼 짓는다

내게 간절했을 그날
나의 어머니
여기가 당신입니까?

이민을 온 우리는 떠나는 것에 민감하고 또 아득하다.
바다를 건너 뿌리를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며 또 이 넓은 미국에서 여러 차례 옮겨다녔던 필자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다.

과연 고향이라는 존재 혹은 의미는 무엇일까?
마냥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것일까? 끝끝내 가 닿아야 하는 목표일까? 목적일까?
떠나는 것은 버리는 것일까? 도망치는 것일까?

무수한 의문들을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며 여전히 떠나고 묻기를 반복하고 있다.



안젤라 장 Lic.#0B84924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

더니, 두 아들 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든데, 두 아들까지도 죽자,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땅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둘 가운데 한 명은 자기 길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니의 신앙을 저도 갖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계시는곳으로 따라 가겠습니다.”

며느리는 신세한탄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땅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밭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시아버지 집안 사람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지주이며, 재산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겸손했고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아름다운 보리밭 러브 스토리인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어떤 드라마 보다는 더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의 스토리 절망과 눈물의 인생에서 희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않고마침내 예수그리스도의 죽보에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마저 죽고그야말로 악재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녀의 꿈은 사라졌고,그의 인생은 끝났을 뿐더러 모든것을 다 잃고 인생에 실패한 고통과 절망만 남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의 인생은 역전 되었습니다. 최악의 인생이었던 그녀를 최고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 보다는 더 드라마틱한 이 해피엔딩의 스토리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눈물의 인생에서 희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많은 역전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 때, 친구가 없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때, 고통속에 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희망을 얻을수 있을까요? 이글을 읽는 분들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의지할수 있는 구원자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323)707-4242



시니어 생활 상식

회원 지출액 비용 (Out-of pocket Limit)

회원 부담액, 코페이먼트 및 공동 부담액을 포함해 메디케어 진료 및 서비스에 대해 귀하가 직접 지불하는 금액. 보험료는 최대 회원 지출액 한도에 합산되지 않는다.

빈혈 Anemia [ə'ni:mia] 어니미어

Suffer from anemia
빈혈을 앓다

pernicious anemia
악성 빈혈

더 자세한 문의 (213)387-6505, (714)690-1300

2024 중동 하계 야유회

남가주 중동 야유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에나파크 랄프 B클락 리저널 파크
(Ralph B Clark Park)

8800 Rosscrans Ave, Buena Park, CA 90621



가족과 함께 참여하세요~
대환영합니다!

오실때 각자 앞으실 야외 의자
지참을 꼭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중동 총동문회



택시기사 미스터 리의 엘에이 세상만사 <2>

“택시비 \$20 대신에 그가 내게 내민 것은?”

(1회에서 계속)

“이봐 기사양반, 아, 내가 캐쉬가 10불 밖에 없는데...얼마 줘야돼?”

“네, 손님 20불주시면 됩니다” 나는 팁을 제외한 택시비만을 얘기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캐쉬가 10불밖에 없다잖아. 자 돈보다 더 좋은 선물 더 얹혀주면 되잖아.”

그가 내게 택시비 10불과 선물이 라고 말하며 얹혀준 건 다름아닌 0알리스...

“어이, 이거 비싼 거야 너 오늘 땀 잡은 줄 알라 구. 허허허..”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구 사는가? 택시비 20불이 모자라 10불짜리 한 장을 주면서 원하지도 않은 성기능 보강 약을 한 알 손에 쥐어주는 이런 비상적인 매너.

택시 일을 하며 참 기가 찬 일을 많이 경험하지만, 가진 게 돈 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다녀도 모자랄 이런 어른이 하는 행실이 어이가 없었다.

참다 못한 내가 성질을 죽이며 한말이, “손님 택시비를 돈으로 주셔야지 누가 이런 약을 달라고 했습니까?” “야, 뭐 이리 말이 많아? 이거 돈으로 따지면 그 놈의 택시비보다 훨씬 많은 거야, 알아?”

본부에서 온 다음 손님의 픽업장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지 못하

고 이 매너 없는 손님을 내려주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고약한 생각이 멈추질 않았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특하면 신문에 얼굴이 나올 만큼 유명하다면 유명한 사람이 야밤에 술 드시고 택시를 불렀을 때는 최소한 지갑에 택시비 정도는 준비를 하고 불러야 하는 게 기본 아닐까... 거기다 모자란 택시비와 팁 대신에 가진 생색을 내며 준다네 것이 정력제 같은 성기능 향상제 라니.. 어라이...

“손님 택시비를 돈으로 주셔야지 누가 이런 약을 달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택시를 부를때는 택시비는 준비하는게 기본 아닐까...

하루에도 평균 최소한 10여명 이상 제 각각의 손님들을 다 다른 목적지로 모시는 것이 기본인 편인데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서인지 택시 손님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위에 얘기한 매너 없는 손님도 그저 이용해 주면 감사할 따름 인게 서글프지만 요즈음 현실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이곳 남가주 LA 답지 않은 날씨다.

비가 오면 생각 나는 그~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면 나처럼 길바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차를 물고 일

하는 사람은 즐겁지 만은 아닌 날이다. 본부에서 콜이 오기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자동차 앞 유리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내 하루를 생각해 본다.

밤 새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면 집 안 식구들은 이미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해서 아무도 없는 빈 집이다.

남들이 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집안의 모든 빛을 차단하고 잠자리에 든다. 피곤해서 눕자

마자 드르렁 거림며 바로 잠에 들면 얼마나 좋을까? 잠이 바로 안 온다.

오만 잡 생각을 섞으며, “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조 섞인 말을 속으로 하며 겨우 잠든다. 전화기를 진동음으로 바꾸어 놓고 자는 건 필수. 얼마나 잤을까? 뒤척 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정상적인 시간으로 일 하고 들어온 마나님이 내가 잠에서 깬까 조심스레 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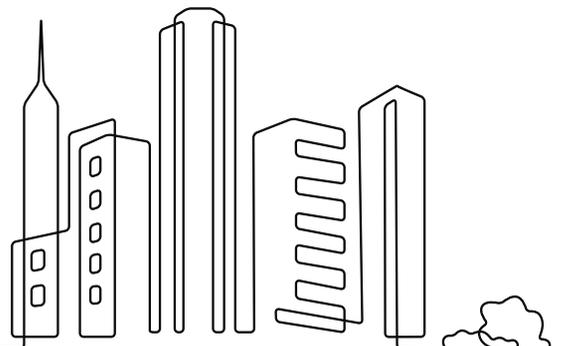
마누라가 챙겨 준 저녁식사, 나에게 출근길 아침식사라 해야 하나? 대충 한 술 떠 넣고 샤워를 끝내고 바로 튀어 나간다. 지켜온 길바닥 대기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불러 줄까?

첫 콜이 들어온다. 000 호텔 앞으로 간다. 무슨 단체 모임 손님 모양이다. 손님과 통화 한다.”택시 부르셨죠? 5분 뒤에 도착합니다” 미안하지만 거의 다 끝나가니 도착하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다. 그 조금만이 얼마나 걸릴지...

<다음 호에 계속>



미국 엘에이에 이민와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며 사는 미스터 리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 일정 부분의 스토리를 작성한 후 인공지능 AI CHAT GPT에 입력하여 실제의 이야기가 아닌 AI chat GPT가 쓴 글입니다.



100% 자연산 다슬기 원액 국내산 다슬기 72시간 추출

간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

위생적인 최신설비로 100% 자연산 다슬기를 사용하여 72시간 정성을 다해 추출한 서제천영농조합 다슬기 기름

충북제천에서 온 동강청정 다슬기 기름 효능

장 건강, 변비예방 / 빈혈예방 / 숙취해소
혈관건강 / 골다공증 / 음주전후 / 눈건강

▶ 편리한 파우치형 포장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건강식품 — 장수만세 213.559.7800

*다슬기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다섭취시 배탈이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B-1A와 NIW

취업이민 1순위 (EB-1A)와 2순위 국가이익 면제 (NIW)에 대해 관심 높아
신청자 준비 자료 유사해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경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법학박사)
-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 (Intern & Extenship)
- Asian Human Services
-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회원

취업이민 1순위 (EB-1A)와 2순위 국가이익 면제 (NIW)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많다. 하지만 이민국 심사기준은 매우 높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를 정리하였다.

1. 왜 이 방법이 좋은지

원칙상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당한 회사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취업이민 1순위 (EB-1A)와 2순위 국가이익 면제 (NIW)는 스폰서 없이 본인이 서명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광고를 해야 하는 취업이민 1단계 노동승인 (LC)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A)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를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먼저,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경력, 둘째는 회원 가입이 까다로운 단체의 가입 여부, 세째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한 일에 대해 발표된 기사 등 매체 자료, 네째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 다섯째는 저명한 저술, 여섯째로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 일곱째는 전시회 등에 작품이 걸린 적이 있는지 여부, 여덟째로는 뛰어난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로 일을 했는지 여부, 아홉째는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상업적 성공 여부이다. 만일 신청자의 연봉이 높거나 다른 전문가의 활동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다면 1순위 준비가 수월할 수 있다.

3. 국가이익 면제 (NIW)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세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 우선, 신청자의 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청자가 노동부 절차 (LC)를 거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4. 두 방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먼저, 수속 기간이다. 1순위의 경우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이민청원 (I-140)과 신분조정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1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노동

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진행할 때도 이민청원 (I-140)이 승인되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국무부 절차를 거쳐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2순위 국가이익 면제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3년 이상 걸린다. 한국에서 진행할 때도 1순위 수속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둘째는 급행 수속이다. 둘 다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 1순위의 경우 업무일 기준 15일 안에 승인 또는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게 된다. 반면 국가이익 면제는 업무일 기준 45일 안

에 결정이 된다. 셋째는 1순위의 경우는 국가이익 면제와 달리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넷째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이익 면제보다는 1순위로 진행하게 된다. 다섯째는 신청자가 객관적인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1순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이익 면제로 신청하는게 좋다. 실무를 하다 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1순위 10가지 요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이익 면제를 준비하는 것 보다 수월하다.

5.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이 두 방법 모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유사하다. 따라서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1순위로 이민청원 (I-140)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거절이 된다면 재신청하거나 아니면 2순위로 이민청원 (I-140)을 준비하면 된다. 1순위로 신청하여 거절되었다고 해서 2순위로 다시 신청할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213) 385-4646

imin@iminusa.net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장례 보험으로 시작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슬픔속에서도 평온과 안정감으로 당신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장례준비 혜택

- 경제적 안정 :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심리적 평온 :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존경, 감사,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 오랜 경험의 전문가가 다룹니다. 세심한 계획으로 쉽고, 빠르게 지원합니다.

생활속에 꼭!필요한 이야기 라디오방송 진행중

- ▶ 라디오서울 1650AM 매주월요일/새벽 5:30~6:00
- ▶ 우리방송 1230AM 매주일요일/아침 7:00~7:30
- ▶ 한국TV(tvhankook.com) → 라이프 → 조마리아 • 영상 다시보기

조 마리아

폭처 플래너

장례보험·무료상담

PROFESSIONAL FUNERAL PLANNER

www.mariachofp.com

310.987.0736 / 626.890.9545

카톡 이나 문자 로 간편하게 상담을 예약하세요.

한국 송금이 필요할 땐 —



빠르고 간편한 와이어바알리

미국 🇺🇸 ↔ 한국 🇰🇷 양방향 당일 송금 (첫 거래 등 예외)

1회 \$5,000, 1일 \$10,000 송금 가능

수수료 0! 로열티 고객 또는 \$1,000 이상 송금시

신규 고객 \$5 쿠폰 · 친구초대 쿠폰 혜택

누적 180만+
앱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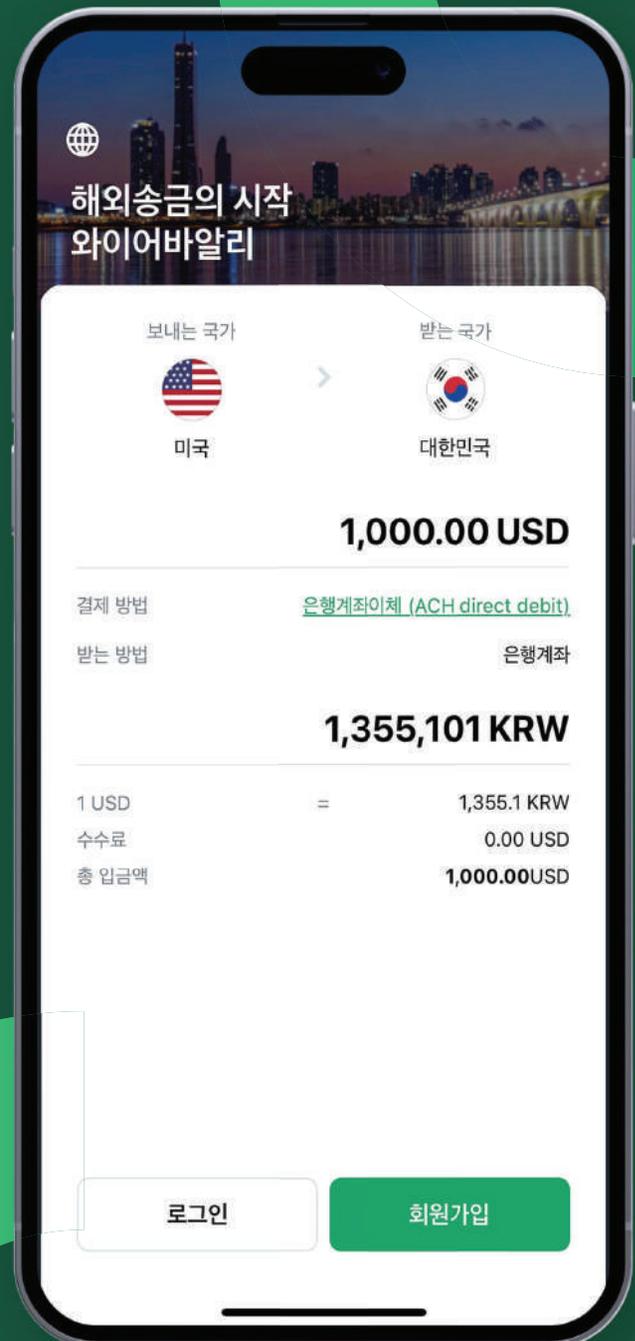
전 세계 90만+
고객 사용

누적 송금액
6조원+

전세계 520+
송금 구간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www.wirebarley.com

고객센터 : 855-582-1024

Grand Open



홈쇼핑 월드 확장 이전

새로운 도약!
원스탑 쇼핑공간

오픈기념 이벤트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확장
이전

LA 지점 (213)380-3330/3307
760 S. Serrano Ave 1st Fl, LA, CA 90005
(8가+세라노)

OC 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멜번 Bank Of Hope 몰)

까다로운 변선생? 아니죠! 골프 치는 변프로? 맞습니다~

전국 숨은 고수 찾아다니며 배우는 '열혈 골퍼'
골프 발라드 '싱글이고 싶어요' 노래 만들기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유쾌한 언어 유희 개그로 상종가를 찢던 변기수. 요즘은 개그 무대 대신 필드를 누비며 전국의 숨은 골퍼 고수를 찾아다닌다. 이름 하여 '변기트립'.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골프 유튜브 채널(변기수골프TV)을 운영하는 그는 프로테스트에도 응시한 적이 있을 만큼 골퍼에 진심이다. '고음볼가'에서 보여준 노래 실력을 발판 삼아 '싱글이고 싶어요'라는 골프송도 만들었다. 골프 관련 사업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까다로운 변선생'에서 '골프 치는 변프로'로 변신한 그는 인터뷰 내내 웃음 코드를 잃지 않으면서도 때론 걱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변기트립' 코너를 통해 전국의 숨은 골퍼 고수를 찾아다니던데.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제가 한 수 배운다는 콘셉트인데 정말 전국에 숨은 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분들과 치고 나면 항상 얻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여유가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실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몇 명의 고수를 만났나?

"대략 15명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얻은 팁이나 가슴에 와 닿은 얘기도 있었을 텐데.

"전남 곡성에 '대고대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드레스 들어가자마자 쳐요. 워낙 준비 동작 없이 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죠. '준비 동작이 길면 긴장돼 불지, 그냥 대면 바로 들어야 돼' 이래요. 그래서 별명이 '대고대고'예요. 근데 준비동작만 빠를 뿐이지 스윙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클럽을 대자마자 칠 수 있는 비결이 뭘 줄 알아? 꾸준히 연습을 했으니까. 그러는 생각이 필요 없어'라고."

본인도 꾸준히 연습하는 스타일 아닌가?

"연습량에 비하면 스코어가 잘 나오는 편인데, 골프를 독학으로 배운 탓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골프를 배우는 후배들에게는 무조건 가까운 프로님한테 가서 배우라고 해요. '약은 약사에게, 골프는 프로에게'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구력이 14년 됐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한 프로님에게 1년 정도 꾸준히 배울 거예요. 확실히 기초가 부족하니깐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들쭉날쭉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 이준기 한국미드아마연맹 전 회장 과도 촬영을 했던데.

"그날 진짜 많은 거 배웠어요. 사람들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그 영상을 엄청나게 시청을 했더라고요. 사실 82세라는 나이에 골프를 한다는 거 자체가 부러운데 OB 1개를 내고도 76타 치시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준기 전 회장은 1942년생으로 한국미드아마연맹을 창설한 인물이다. 1972년 골프에 입문한 그는 그동안 1만 번이 넘는 라운드를 했으며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어렵다는 에이지 슛(자신의 나이 이하의 타수를 치는 것)을 수백 번 넘게 기록했다. 최소타 기록이 61타인 이 전 회장은 세 번의 암 수술을 이겨내고 여전히 왕성하게 골프를 즐기고 있다.

유튜브 채널이 인기인데, 수익은 어떤가.

"가성비 안 좋은 것 중 1등이 골프 유튜브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특집 대회 한 번 하면 6000만~7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변기트립 챔피언십 같은 건 2박 3일 동안 지방 내려가야 해요. 숙박에, 카메라 감독님들 많죠, 상금 외에 출연자 거마비도 드려야죠, 어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진짜 골프를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면 힘들어요."

처음 골퍼는 어떻게 시작했나.

"2009년 겨울쯤이에요. 그때는 여의도 KBS 연구동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앞 지하에 스크린골프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때 김준호 형, 정명훈, 홍인규 등 여러 개그맨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한 거죠. 남들보다 잘 치고 싶어서 골퍼TV를 교육방송 삼아 봤어요. 겨울에 머리를 올리러 갔는데 머리 올려준다는 후배가 저보다 못 친 거예요. 하하. 지금도 그 동생 만나면 놀려요."

개그맨 김국진 씨와 관련해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머리 올린 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마포에 서경석 선배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했어요. 거기에 김진국 선배가 계시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갔었죠. 선배님이 밝게 만나주시기에 제가 대뜸 '선배님, 죄송한데 선배님 스윙하는 거 구경하러 와도 될까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난 언제든지 여기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선배님이 항상 7번 방에 계시어서 제가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한 거죠."

변기수는 김국진과 자주 어울리면서 골퍼실력이 늘었다고 했다.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1게임이나 친 적도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골퍼존 마포구 랭킹 1위가 김국진, 2위가 변기수, 3위가 정명훈이었다고 한다.

2014년 골퍼존 G-투어에도 나가지 않았나.

"초청 선수로 나갔던 건데 그래도 120명 중



에서 20~3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홍인규는 골등하고요. ㅋㅋ. 정명훈이 가장 나은 7등인가 8등 했고요. 근데 이젠 인규도 엄청 잘 쳐요."

골프를 잘 치려면 꾸준히 운동도 해야 할 텐데.

"맞아요. 레슨도 정기적으로 받고 몸도 잘 만 들어야 하는데 사실 그럴 여유가 많지 않아요. 어찌 됐건 움직여서 행사도 뛰고 돈을 벌어야 가족들 먹여 살리잖아요. 사람들이 '연예인 걱정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해도 돼요. 진짜 몇 명만 빼놓고는 대부분 (걱정)해도 돼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연예인이라고 돈 많이 버는 건 소수예요. 연예인들은 오히려 퇴직금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분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인가? 보스턴백이나 파우치, 장갑 등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던데.

"스태플들 월급 밀리면 안 되고 아이들 학원비도 벌어야 하니까, 골프 관련 소모품 같은 거 제작해서 판매해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중간 유통 단계 거치지 않고 공동 구매를

하면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 같고요."

요즘 새롭게 골프 의류 업체와 협업은 어떻게 이뤄졌나.

"좋은 회사(지오메트릭 그라운드) 만나서 옷에 제 아이디어를 넣으면 어떻게 하면서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입을 수 있게 먼저 500명이든 1000명이든 선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것도 시도해 보려고요. 제가 벨라룩스 선패치라는 업체의 모델을 하고 파우치도 만들고 있는데, 골프장 가서 그 선패치를 하고 있는 분이나 파우치 들고 있는 분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품 판매로 돈은 좀 벌었는지.

"보스턴백을 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아직 첫 주문 물량이 남아 있어요. 하하. 파우치는 감사하게도 어떤 기업 회장님께서 본인 홀원 선물로 하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400개 이상 주문해주신 덕분에 좀 팔았죠. 근데 큰돈은 못 벌었어요. 그래도 제 제품을 선택해주신 분들이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죠."

<다음호에 계속>



musicplaza.com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MUSIC PLAZA+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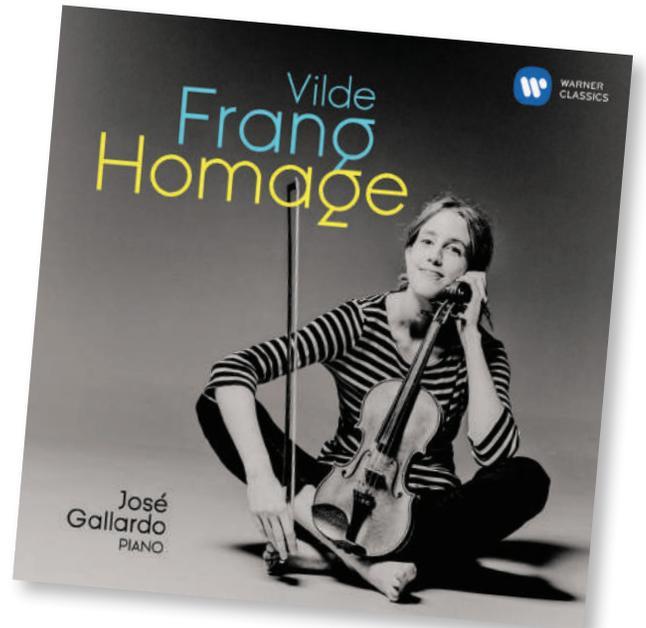
인기 한국스타 음반
TV 드라마, DVD
한국영화, 팝송
클래식 뉴에이지 등
각종 CD



뮤직플라자
(213) 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노르웨이 숲속의 요정같은 앳된 용모와는 다른 파워풀한 연주와 완벽한 테크닉의 바이올리니스트 Vilde Frang!



미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Hilary Hahn, 구소련에서 독립한 조지아를 대표하는 Lisa Batiashvili., 네덜란드의 Janine Jansen,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봄소리 등 등 오늘날 클래식 무대를 이끌어나가는 젊은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여럿 있다. 그 중, 이젠 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Top은 노르웨이 출신의 Vilde Frang이 아닐까 싶다. 흰칠한 키에 늘씬한 체형, 거기다 백옥같은 흰 피부의 전형적인 북유럽 미인(?)에 속한 그녀이지만 그 노르웨이 숲속의 요정같은 앳된 용모와는 다른 파워풀한 연주와 완벽한 테크닉이 가미된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연주를 듣고 있으면 정말 음악 듣기가 나의 인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얼마나 기쁜일인지 다시 한 번 일깨워진다! 이번 글에서는 독자들도 그 '문화적 흡족감'을 그녀의 연주를 통해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음악 경력과 주요 음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

Vilde Frang은 1986년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 태생이라고 한다. 이제 곧 만 38세가 되니 이제 그녀의 나이도 적지 않다...! 오케스트라 더블베이스 단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자신의 언

니와 함께 그녀도 고사리같은 손으로 더블베이스를 연주했다고 하는데 어느 해 가족들이 악기를 가지고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더블베이스 3대를 모두 캠핑카에 실을 수가 없자 아버지가 농담으로 장난스럽게 “너는 바이올린으로 전향하는게 어때?”라며 장난감 바이올린을 사줬다고 한다. 그때는 그걸 정말 싫어했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는 진짜 바이올린을 선물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이후 바이올린은 그녀의 인생이 되었다.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 협연하면서 10살때 데뷔 무대를 장식했고, 거장 지휘자 Mariss Jansons가 이끄는 오슬로 필하모닉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함께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을 협연하기도 했다. 훗날 그녀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바로 그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한다. 바로 그 무렵 Vilde Frang은 바이올린의 여제 Anne-Sophie Mutter를 만나게 되는데, Anne-Sophie Mutter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인 '베르겐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서 일찍이 Vilde Frang의 재능을 알아봤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Anne-Sophie Mutter 재단의 장학생으로 그녀에게 음악적, 교육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 안네 소피 무터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미국, 유럽투어에서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Vilde Frang과 함께 연주 하면서 이 젊은 연주자를 전 세계에 널리 소개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Vilde Frang의 연주는 Anne-Sophie Mutter의 연주와 닮아있다. 바이올린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연주하는 듯한 가끔은 섬뜩

하기까지 한 그 느낌까지...! 그렇게 인지도를 쌓아올린 Vilde Frang은 갓 20을 넘긴 2008년 EMI (지금의 Warner Music)와 계약을 맺게 되었고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계에 가장 영향력있는 젊은 연주자 중 한명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2010년도에 발매된 데뷔 레코딩은 역시 그녀의 피에 흐르는 북유럽 감성을 대표하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포함한 레코딩이었다. 그 신선한 청량함에 휘감기면서 서정적인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다른 레코딩들과는 분명 차별점이 있었다. 마치 노르웨이 숲에서 아침 안개를 뚫고 막 나온 요정같은 Vilde Frang의 모습이 담긴 표지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그 이후에도 호평받은 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Mozart 바이올린 협주곡들을 담은 앨범들을 꾸준히 발표했지만 여기에서는 2017년에 발표한 소품집인 [Homage]와 2019년도에 발표한 [Paganini & Schubert]에 주목해 보겠다. 우선 [Homage]에서는 먼저 마음을 끌어당기는 곡이 있다. 바로 슈만의 가곡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인기가 있을 'Widmung (From Myrthen, Op. 25)'이다. 원래 악보에는 없고 사람의 목소리로는 부르기 힘든 음악전문 용어로 'passage'라고 할 수 있는 톡톡 뱉어놓는 듯한 매력적인 빠른 장식음들과 1분 즈음에 나오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멜로디를 주고 받는 편곡은 정말 압권이다! [Paganini & Schubert]에서는 역시 Paganini의 'Cantabile in D'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보다 더 이 곡을 아름답게 연주한 버전이 있던가?... 3분 7초 부

분부터 나오는 바이올린의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다. 그녀의 완벽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슈베르트의 '마왕'을 기초로 작곡된 Ernst의 'Grand Caprice, Op. 26 (After Schubert's "Erlkönig" D328)'도 필청 트랙이다. 유튜브에도 이 곡을 연주하는 그녀의 영상이 있는데 왼손으로 정상적인 운지와 함께 줄을 튕기기도 해가며 오른손으로는 긴장감있는 리듬을 힘찬 운궁으로 연주하고 각종 완급조절과 함께 다성 부적인 연주를 동시에 하는 걸 보면 감탄만 나온다!

2024년 9월에 출시 예정인 Elgar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중심으로 하는 새앨범의 몇몇 트랙과 표지가 선공개 되었는데, 이 표지에서 그녀는 짧은 헤어컷을 하고 일부러 나이 든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듯 보인다. 자신의 그 '요정'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녀가 느껴진다. 성숙한 그녀가 연주하는 Elgar라...! 너무 기대된다!

frisell66@gmail.com



박기한
음악칼럼니스트

라디오서울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용자나라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핥습니다!**

응모기간: 2024년 4월 15일~12월 20일 까지

응모방법: Radioseoul1650.com

당첨자 발표: 2024년 12월 28일

선물: \$2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매달 25명)

* 당첨자 이메일 개별 전송

24시간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 완전 개편된 라디오서울

Radioseoul1650.com

미국 뉴스도 한국 뉴스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미 전역 전문 기자들과 한국 서울경제의 뉴스속보 실시간 업로딩으로 한국과 미국의
최신 뉴스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뉴스레터
신규 서비스 시작!

- 전 미주 가장 빠른 최신 한인네트워크
- 매일 아침, 맞춤 콘텐츠로 구성된 뉴스 배달
- 본국 '서울경제'의 최신뉴스 실시간 공유
- 라디오 서울 청취자 참여 이벤트 및 공지사항 안내

뉴스레터 무료구독 혜택!

- 월별, 스페셜 이벤트 등 자동 응모 및 선물기회
- 오프라인 행사 사전 공지 및 이벤트 자동 응모
- 연말결산 이벤트 참여 및 선물 증정

무료구독 방법

컴퓨터, 핸드폰으로
Radioseoul1650.com 방문 후,
뉴스레터 구독 신청

파리의 화살이 빛나던 날, 양궁 이야기

최소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 예상 외의 32개 메달 획득 성과 이뤄 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훈련했는지... 감탄과 감동 이상의 큰 선물 줘



이지효 교수

문화콘텐츠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1978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의 32개 메달 획득 성과를 거둬 국민들의 가슴에 훈훈한 열기와 기쁨을 선사하고 예전 보다 웃음이 사라진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끄는 협회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들에게는 미래준비의 답을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양궁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세계 최강으로 절대 왕좌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 양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했고, 여자 양궁 팀은 10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 남자 양궁에서도 김우진이 3관왕에 오르는 등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양궁선수들 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시스템 및 지원이 있었고, 우리 선수들은 꼼꼼하게 준비된 훈련 시스템 덕분에 세계 최정상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양궁협회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장비와 시설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명궁이 적중하



듯, 양궁협회는 우리 선수들을 정상으로 향하는 길로 당겨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한 양궁협회의 특별한 지원은 한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실감케 했습니다. 스포츠업계의 취재에 따르면 양궁의 선전에는 대한양궁협회장 정익선 현대차 회장과의 현대차그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무려 40년간 한국 양궁을 지원했는데, 이는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 기간입니다. 진천선수촌에 앵벌리드 양궁 경기장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세트'를 설치하고, 간판, 대형 전광판 등 대회 상징색까지 반영해 세트 경기장에 구현해냈습니다. 경기장 출입구에서 미디어

와 만나는 인터뷰 공간까지 가는 동선을 실제와 똑같이 만들고 장내 아나운서 코멘트, 관중의 환호성에 소음까지 프랑스어와 영어로 틀어 현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센강변에 있는 앵벌리드의 까다로운 강바람과 가장 비슷한 곳을 찾아 여주 남한강변에서 300m 떨어진 곳에 훈련장을 마련해 사흘간 훈련을 진행하여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슈팅 로봇을 비롯한 첨단 R&D 기술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고, 압박감이 큰 대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길러주기 위해 심리 전문가와 심리 훈련도 강화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 그리고 양궁 종주

국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감탄과 감동 이상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양궁협회의 '삼위일체'로 우리 선수들은 파리의 화살을 쏘아 올리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양궁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양궁의 종주국은 한국이지만 요즘 외국 선수들의 기량은 정말 많이 올라왔고, 우리는 세계 정상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육

성에 힘써 젊은 선수들을 더욱 발굴하고 육성하여 양궁의 미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좀더 세밀한 과학적 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훈련을 위한 국제 교류도 더욱 확대하여 해외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양궁의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 복지 증진에도 힘써 선수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스포츠 마케팅에도 노력을 기울여 양궁을 더욱 대중화시키고 기업과의 스폰서십도 확대하여 양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국가대표의 선전은 대기업들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해준 덕분에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화그룹은 20년 넘게 사격을 후원하며 발전기금으로만 약 200억원이 넘는 지원을 이어왔고, SKT는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을 맡은 뒤 20년 넘게 약 300억원으로 펜싱 종목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40년간 양궁을 지원해온 현대 역시 수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선수들과 지도자 및 양궁협회, 이들 모두의 한마음이 없었다면 양궁 종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 졌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또다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세계 최정상 유지를 향해 나아가갈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 대한민국 양궁팀 및 모든 한국대표 선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jihyol@gmail.com



생활정보 비즈니스

“싱싱한 과일과 야채 딜리버리 해드려요” ‘우리과일가게’ 성업중

엘에이 코리아타운 3가길에 하바드 종합병원 입구에 위치한 우리과일 가게가 싱싱한 제철 과일과 야채를 공수해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제철과일과 야채들을 먹을 수 있기 시작하게 된 게 불과 얼마전이다.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식품점에서 배나 사과를 농장 직수입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한국에서 재배한 과일, 야채를 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도 감사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엘에이 외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과일 농사를 짓는 한인들이 수 많은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2024년 현재 한국에 가서나 먹을 수 있는 과일, 야채를 이곳 미국 엘에이에서도 접할 수 있는 행복한 시절을 살게 된거다.

3가와 하바드길 코너 하바드종합병원 입구에 있는 ‘우리과일’은 병원 입구 주차장 코너에 자리하고 있는 과일가게인데 없는데 없을 정도로 잘 준비하고 성업 중이다.

요즘 제철 과일로 잘나가는게 북송아란다.

최고 인기상품은 쫄쫄 씹는 맛의 찰옥수수 그리고, 야채는 한국오이와 풋고추가 베스트셀러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 4시30분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만 영업하며 일요일은 쉰다.

과일, 야채 구입 및 딜리버리 주문은 (213)407-3351 로 하면 되고 주소는 266 S. harvard Blvd. Los Angeles

나음 한의원의 생로병사

한의학은 어떤 의학인가? <2>



고기연
원장

지난 시간에 한의학은 동양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체의 생리와 건강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질병을 인식하고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체관념과 정기학설, 음양학설, 오행학설을 통해 한의학의 기본 사유체계가 세워지고, 이 학설들을 통해 세운 인체의 정상 생리와 건강은 어떤 것인지, 또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주관하는 곳이 오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장은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을 이야기 합니다. 오장이 중심이 되어서 육부와 결합하고, 신체의 기관과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신체의 오장 육부와 각각의 조직과 기관들은 경락이라고 부르는 통로를 통해 연결되고, 경락을 통해 기와 혈과 진액을 운반하고 순환하며 평형을 유지합니다.

정기학설을 통해 배웠듯이 기가 인체의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끊임없이 활동해서 세포가 성장하고, 활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음양학설에서 배웠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동시에 견제도 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오행학설에서 배웠듯이 서로 연결되어서 상생하고, 상극도 하는 기운들이 오장과 육부에서도 존재하면서 우리 몸을 연결하고 상생하면서 상극을 통해 인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생리상태라고 보구요. 질병에 대한 인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병인)과 병이 우리 몸에 발생되어진 것(발병), 그리고 병이 발생한 뒤에 진행되어지는 병의 메커니즘,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병의 원인은 외감(세균, 바이러스, 기후변화 등등)과 내상(감정, 스트레스, 상한음식, 과로 등등), 병리적 산물(어혈, 담음), 외상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발생하는 기본 원리는 인체에 사기(병의 원인)가 들어와서 정기를 누르고 상하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때 유념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환자의 외감과 내상, 병리 산물, 외상 중에 어떠한 이유로 발병이 되었나 입니다. 병의 메커니즘은 질병의 발생과 발전, 변화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등의 작동과 작용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사기가 강하고 정기가 약해졌을 때, 음양의 기운이 균형을 잃었을 때, 기혈진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장 육부의 상호 협력이 안 이루어지고 약해지거나 항진되었을 때,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등 외감으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병의 메커니즘 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부정거사하고 음양의 평형을 추구하며 기혈진액의 순환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부정거사는 정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사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음양의 평형은 서로 균형이 잡혀서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혈진액의 순환이 잘 되어서 오장육부가 잘 소통되고 협력하면 우리 인체는 항상 건강할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를 잘 인식하고, 또 내 몸이 병리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이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657-325-4000

naumacupuncture@gmail.com

NHS 건강 정보

햇 야생 천종산삼 구입 부담도 절감한다



스티브 조
NHS GOLD R&D Inc 대표 뉴트리셔니스트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전문가들은 올 가을 환절기에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산삼은 독이 없는 약재로 오장의 기를 채워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피를 생성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야생의 산삼이 미국에서는 매년 9월부터 채취되어 필요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수효는 많아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 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야생 산삼과 재배 인삼을 특이 식물로 지정하여 각 주에서 법을 정하고 관리하였으나 1975년 이들 19개 주가 공동 합의한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규약을 기반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규약에서 다루지는 산삼의 경우 5개 잎이 포함된 한줄기인 구(Prong)를 기반으로 산삼의 연수를 추산하는 방법과 산삼의 목부분(Root Neck)에 새겨 넣은 자국(Stem Scar)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는 심마니가 산삼의 연령을 사전에 인지하여 최소 3구이상 또는 8년 이상 산삼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배삼의 경우 8월에도 채취가 가능하지만 야생 천종산삼의 경우 모든 주가 9월부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이면 낙엽이 지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줄기가 떨어져 땅에 묻힌 산삼을 찾기 어렵게되고 서

식지가 대부분 고산지라 눈 또는 서리가 내리는 겨울이 일찍오고 땅이 얼게 되면 그마저도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 기간은 약 2달 정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유통되는 야생 생산삼은 매주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 N. 캐롤라이나산의 경우 일체의 재배 삼이 없는 100%야생으로 매년 공급량이 부족하다.

NHS 내추럴헬스시스템은 수년간 미동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채취된 야생 천종산삼을 매입하고 유통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전 주문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이 N. 캐롤라이나산 야생 천종산삼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심마니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NHS 내추럴헬스시스템은 구분없이 확보한 산삼을 최소 25년이상이면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은 천종산삼만을 선별하여 1파운드(약 60-70뿌리) 단위로 \$950에 공동구매를 신청자에게 제공 한다. 이는 혼합된 산삼 약 3파운드에서 선별된 것으로 한뿌리 한뿌리 품질이 좋고 효능에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 행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산삼은 노우스캐롤라이나 농림부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진품이다.

이번 공동구매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년에 한번만 시행하는 행사이다.

▲ 213-905-0439

iswjo@yahoo.com

통증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침과 부항요법, 추나요법, 팔사요법, 골타요법, 근육, 관절 교정으로 구조적 이상을 제거해서 만성통증 질환과 내과질환, 신경계 질환까지 치료합니다.

진료 :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경력 : 중국 북경 중의약 대학 졸업
중국 북경 동직문 병원 인턴, 레지던트 근무.

보험 : 각종보험 취급.



나음 한의원

(657)325-4000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교통사고 및 개인 상해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개인상해 교통사고 전문 로펌 CZ Law.



교통사고

- 차, 트럭
- 버스 사고
- 오토바이 사고
- 자전거 사고
- 보행자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Amazon, FedEx 와 Flex 운전자 사고
- Doordash & Grubhub 사고
- Uber, Lyft 사고



심각부상

- 뇌 손상
- 척추 부상
- 부당한 사망



낙상사고

-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가게 사고
- 아파트 사고
- 보행길 사고
- 헬스장 사고
- 뒷마당 사고
- 익사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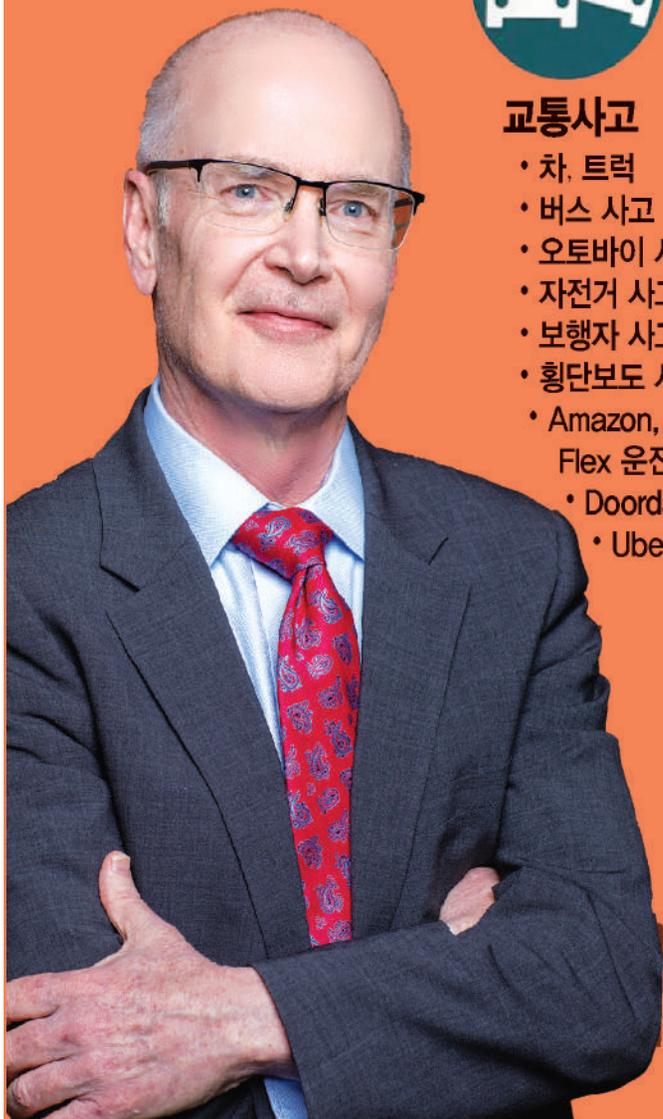
폭행

- 경찰에 의한 폭행
- 유명인물에 의한 폭행
- 경비에 의한 폭행
- 파티에서 일어난 폭행
- 개에 물린 사고



기타개인상해사건

- 소유부지법적책임
- 생산물 책임
- 의료사고
- 분만/출산 손상
- 뇌성마비
- 수술오류
- 투약과오



200여명의 직원과
한국인 부인, 한국인직원들이
작은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케이스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

상담 문의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
CZ Law 그룹

폴 주커맨



SCAN ME

www.cz.law 3600 Wilshire Blvd., Suite 1108, L.A., CA 90010



LG 에어컨
Life's Good

**에어컨
세계판매 1등!**

Lic# 1021077
대한민국 대표 에어컨

에어컨 구입할 때, 겨울철 난방까지 생각하세요!

시시시철 상쾌한 바람... **더위에도
추위에도**

**300만불
보험 가입
전문업체**

단 하나뿐인!!

스탠드형 에어컨!
상업용, 가정용



Covers 1500sq.ft.
23 x 71 x 17"

조용한 에어컨

냉·난방 겸용 에어컨 / 공기정화 / 제습기능

4계절 냉·난방!

- 냉방, 난방, 제습 한번에 ok.
- 초절전형 전기로 SAVING (Energy Star)
- 쾌적하게 숙면 할 수 있는 조용한 에어컨



Energy 효율이 높은 모델에 한하여 Federal Tax Credit 신청가능하니 회계사와 협의 바랍니다.

SINGLE-Wall Mount



LS090HXV, LS120HXV
Single Zone Wall-Mount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LS180HEV, LS240HEV1
Mega Single Zone Wall-Mount
18,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LS307HV3, LS360HV3
Single Zone Wall-Mount
30,000~36,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Mirror



LA090HSV~LA240HSV
Single Zone Wall-Mount
9,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Gallery



LA090HVP, LA120HVP
Single Zone Wall-Mount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FLOOR STANDING



LF427HV

Single Zone Floor Standing
42,000 BTU Cooling & heating

커머셜 냉장고 냉동고



Multi-Wall Mount



Multi Zone Wall Mount
18,000~5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Ceiling Cassette



SINGLE Ceiling Cassette
18,000~42,000 BTU Cooling & heating

LG 에어컨 공식 대리점 크레딧카드 받습니다

정식라이선스 업체
(LIC# 1021077)

SK클링 213.364.4000

845 S. Grand View St.
L.A., CA 90057

“정부 '간토 대학살' 모르쇠...100년 전보다도 후퇴”

- 일본서 '조선인 학살' 알리는 니시자키 마사오 호센카 이사 -



니시자키 마사오 호센카 이사

‘조선인 약탈·방화’ 유언비어로 6000명 학살당한 사실에 충격

“한국에서 8월 15일은 광복절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관동(간토)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입니다. 이 대지진으로 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는데 가해자인 일본이 조선인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14만 명이 행방불명되고 3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도쿄 등 관동 지역 일대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관동 지역에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했으며 특히 “조선인이 약탈·방화를 저지르고 우물에 독극물을 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로 인해 많은 조선인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수는 6000명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를 반성하는 일부 일본인들이 그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 ‘호센카(봉선화)’가 바로 그곳이다.

니시자키 마사오 호센카 이사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는 유대인 학살을

반성·사죄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교육 현장 등에서 조선인 학살 사건을 철저하게 숨기는 모습”이라며 “호센카는 이 사건을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고 진실을 숨기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센카의 설립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니시자키 이사는 “당시 ‘도쿄 아라카와 강변에 관동대지진 때 학살된 조선인들의 유골이 아직 묻혀 있다’는 동네 노인들의 증언이 있었다”며 “이에 뜻있는 일본인들이 모여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유골을 발굴하고 추모하는 모임을 결성했고 이 모임이 1993년 사회교육 단체로 등록되면서 이름을 ‘호센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단체의 이름은 한국의 전통 꽃이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봉선화’로 지었다고 한다. 그는 “추모 모임이 결성됐을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조선인 학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망설임 없이 모임에 가입했다”면서 “조선인 유골이 묻혀 있다는 아라카와 강변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 인근으로 어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놀던 곳”이라고 전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곳에

서 일본의 만행이 자행됐다는 것을 안 그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교차했다고 했다.

40년 넘게 조선인 학살 진실 알리기 활동을 해온 니시자키 이사는 “일본의 공교육에도 조선인 학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일본 정부도 국회에서 ‘조선인 학살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그래서 호센카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조선인 학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민간의 증언을 모으고 있고 숨진 조선

인을 추모하는 ‘바람아, 봉선화의 노래를 전해라’는 책을 2001년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호센카 사무실은 조선인의 유골이 묻혀 있는 아라카와 강변 인근의 주택가에 자리해 있다. 사무실 옆에는 조선인 추모비가 있는데 일본인들이 땅을 매입하고 세운 것이다. 추모비에는 한자로 슬퍼할 ‘도(悼)’자가 새겨져 있으며 니시자키 이사는 추모비를 관리하는 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조선인 학살에 대해 100년 전 일

본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기록이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이 힘들다’고 합니다. 100년 전보다 후퇴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조선인 학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아직도 땅에 묻혀 있는 유골을 수습하는 한편 유족을 찾아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가해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정욱 기자>



일본 도쿄 아라카와 강변 인근에 있는 시민단체 호센카 사무실 내부에 관동대지진과 당시 학살된 조선인에 대한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 도쿄=김정욱 기자

42년간 진실 알리기 활동 나서 과거 “조사 중”이라던 日 정부 지금은 “자료 없다”며 말 바뀌



일본 도쿄 아라카와 강변 인근에 있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비. 도쿄=김정욱 기자

‘범도 1, 2’



범도 1, 2

방현석(지은이) | 문학동네

의병으로 활동하다 일제에 강제 해산을 당한 뒤 연해주와 만주를 떠돌며 군수품을 마련해 이북고 대한독립군으로서 싸운 홍범도는 또 한번 이국을 떠돌다 마침내 귀환한 셈이다. 그 누구보다 온몸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홍범도의 파란만장한 여정, 그와 함께 싸운 포수들의 항일 무장투쟁의 대서사시가 <범도>에서 장대하게 펼쳐진다.

“우리는 낮과 죽창을 들고 일어났던 농민군과 다르오.

하인을 데리고 다니며 행세하던 양반들의 의병과도 전혀 다르오.

가진 총알의 숫자만큼 적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 포수들이오.”

_본문에서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혼자였던 한 소년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차이경, 군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남창일, 연모하고 존경했던 백무아, 전설적인 저격수 진포 등과 함께하며 비로소 ‘홍범도’가 된다.

<범도>는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단지 역사 속 인물의 활약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방현석은 전란의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치열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생생히 그려낸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해 만주와 연해주를 중흥무진하는 홍범도의 궤적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삶과 거대한 독립운동의 물결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방현석이 되살려낸 개성 강한 인물들이 펼쳐 보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강력한 읽는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마치 한 시기를 함께 살아낸 듯 이야기에 빠져들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설만이 줄 수 있는 귀한 경험일 것이다.

2권 봉오동의 그들

“그러나 오늘, 나는 이기려 하오. 이겨 보아려 하오. 기어이 이길 것이오. 그러니 우리, 끝내 이깁시다. 대한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는 있어도 저서는 아니 될 독립전쟁의 첫번째 대회를 벌이고 있소. 반드시 이겨서, 지을 수 없는 승리의 이정표를 이 봉오동에 새겨두어야 하오.”

홍범도가 이끌던 항일연합포연대는 일본 통감부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다. 소수의 동료들과 러시아로 망명한 홍범도는 연해주의 황야를 떠돌며 군자금과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는 사이 대한제국은 일본에 완전히 국권을 빼앗기고, 고종 황제의 죽음으로 3월 1일 만세운동이 벌어지며 한반도는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홍범도는 봉오동에 집결해 일본 육군의 신화 하세가와가 양성한 월강추격대와의 운명적 결전을 준비한다.

“한 명이 간 길은 열 명도 갈 수 있고, 백 명도 갈 수 있고, 천 명도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가 갔으니 언젠가는 또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열이 되고 백이 되겠지요.”

_본문에서

소설 <범도>는 마지막 장, ‘작가의 말_나는 이 이야기를 혼자 쓰지 않았다’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그에게 승리는 짧았고 패배는 길었다. 그에게 승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그날, 단 하루였고 남은 모든 날이 패배였다. 그는 싸워서 이긴 그 하루의 힘으로 남은 모든 날의 패배에 맞서야 했다. ... 종락 ... 하지만 나는 그가 아니어서 대전과 동작동에서 모욕감을 견디기 어려웠다. 백 년전, 그와 백무아가 억압과 차별, 불의를 향해 발사한 마지막 한 발의 탄환은 아직 탄착점에 도착하지 않았다. 일격필살의 저격수였던 그들의 탄환은 빛나간 적이 없으므로 반드시 표적의 정중앙을 관통할 것이다.”

영웅 홍범도가 아닌 엄혹한 시대에 웃고 울고 사랑하고 갈망하며 자신만의 신념을 품고 살아간 한 인간의 삶을 책 두권에 담아...

대한독립운동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3·1 만세운동과 같은 비폭력 저항운동, 그리고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무장투쟁. 홍범도는 무장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을 되찾으려 했던 인물이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겨 군대가 해산된 후 조선에서 총을 가진 유일한 집단인 바로 짐승을 사냥하는 포수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포수로 자라 범을 사냥하는 포수로 전국에 이름을 떨칠 정도의 명사수였던 홍범도는 동료의 가족들이 일본군에 몰살당하는 참상을 목격한 뒤 홀로 일본군과 싸우기 시작하고, 후에는 그를 따르는 포수들을 규합해 항일연합포연대를 구성한다.

<범도>는 그들이 일본군과 싸우다 강제로 해산당해 만주와 연해주를 떠돌고, 이후에 돌아와 대한독립군이 되어 다시 일본군과 봉오동에서 대격돌하는 순간까지를 그린다.

<범도>는 처음부터 대의를 품고 분연히 일어난 영웅이 아닌, 순진무구한 소년 사냥꾼에서 시대의 격랑에 휘말리며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홍범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시대상을 관통하며 나아간다. 먹고살기 위해 군영에 들어가고,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를 위해 홀로 일본군에 복수를 감행하고, 일제의 강제 해산 명령에 궁핍한 신세가 되어 광야를 헤매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영웅과 다르다.

<범도>는 그래서 어쩌면 평범했던 한 사람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과 싸워나갔는지에

1권 포수의 원칙

“포수는 산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아. 농부와 어부는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지만 포수는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사는 거야. 산이 내게 내주는 몫만큼 잡는 거지. 여우에게는 여우의 몫이 있고, 늑대에게는 늑대의 몫이 있고, 범에게도 범의 몫이 있듯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범도는 산야를 떠돌며 포수로 성장한다. 생계를 위해 열다섯의 나이에 평양 군영에 입대한 그는 그곳에서 민란의 참상과 위정자들의 부조리를 목격하고 군영을 떠난다. 다시 떠돌이 포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범도는 군영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의 가족들이 일본군에게 처참히 몰살당한 것에 분노해 홀로 일본군을 한 명씩 처단해나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 한 자루로 일본군과 싸우는 명사수에 대한 소문은 조선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일본군과 현혹상단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은 몰라도 세 명의 목숨값으로 한 명에 왜군 열 두씩, 서른 두는 내가 맡아서 계산하려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죽은 내 친구가 할 수 없으니 아직 살아 있는 내가 그것이라도 해야지.”

_본문에서



알라딘서점 LA점
송명국이사

BTS Jungkook's Solo Journey Hits the Big Screen: "JUNG KOOK: I AM STILL" Coming to Theaters Worldwide!

Big Hit Music just dropped some major news, ARMYs! Jungkook's solo documentary "JUNG KOOK: I AM STILL" is set to premiere on October 18th in 120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s CGV theaters. Japan gets it a bit earlier on October 4th.

Here's what we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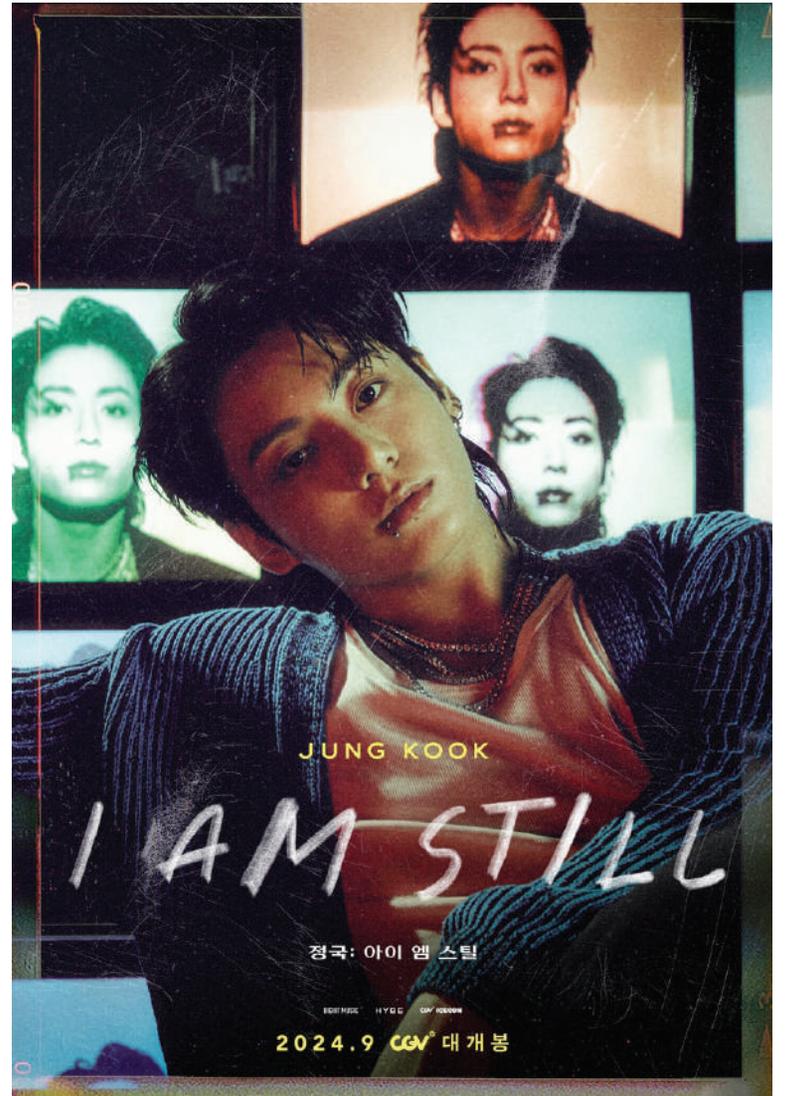
- The film covers JK's solo journey from his first single "Seven" (July 2023) to his solo album "GOLDEN" (November 2023)
- Behind-the-scenes footage of:
- His surprise performance at Times Square's

TSX Entertainment in NYC

- Fan showcase events connecting with 224 countries online and offline
- EXCLUSIVE: First-ever look at the recording session for "Standing Next to You"!

Big Hit promises we'll get to see "Jungkook's honest story that hasn't been revealed anywhere else."

Fun fact: Jungkook enlisted in the Korean army last December, so this is a sweet treat while he's serving!



OMG! BLACKPINK IS BACK AND THEY'RE SLAYING HARDER THAN EVER!



OMG! K-Pop Queens aespa Slay Tokyo Dome for Second Year Running!

Stop the presses, folks! The K-pop sensation that's got everyone buzzing, aespa, just dropped jaws and broke records at Tokyo Dome. These fierce femmes fatales rocked the house for two straight nights, pulling in a mind-blowing crowd of 94,000 screaming fans! - more article... visit radioseoul1650.com KNOW section

Hold onto your wigs, BLINKS, because your fave K-pop queens just reunited after 11 long months and it was EPIC AF!

The fab four – Jisoo, Jennie, Rosé, and Lisa – hit up the pink carpet (yasss, PINK!) for their "BLACKPINK WORLD TOUR [BORN PINK] IN CINEMAS" event in Seoul, and let's just say the crowd went absolutely WILD!

It's been a hot minute since we've seen all four girls together (like, since their Seoul finale last September), and honey, they did NOT disappoint!

These boss babes were serving looks, throwing finger hearts, and flashing those million-dollar smiles like nobody's business. And get this – they even threw up 8 fingers for their 8th anniversary. We stan queens who celebrate!

But wait, there's more tea to spill!

Jisoo dropped this bomb: "Our love for BLINKs has grown 800 times!" Girl, same!

- more article... visit radioseoul1650.com KNOW section





NHSGOLD R&D INC.
NUTRITIONAL HEALTH SUPPL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연방정부 허가업체 원조 천종산삼 도매회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뉴욕주 정식 허가 업체-Permit No.: 463, 464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최고 75% 할인

“2024년 야생 천종산삼을 사전 주문하세요!”

1년에 **딱** 한번 공동 구매 찬스 !!

미국은 야생 산삼 및 재배 인삼이 있는 19개주 모두 관리와 유통에 있어서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야생 산삼의 경우 연방법으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시행된 CITES 규범은 야생 천종 산삼의 경우 5년 미만(3구이하)은 채취할 수 없으며 매년 9월 1일부터 뿌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천종산삼의 대부분이 미 동부 고산지에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찾아와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달 남짓입니다. 또한, 가격도 산삼의 희소성 가치로 매년 소폭 인상되며 채취기간중 주단위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NHS는 수년간 미동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채취된 야생 천종산삼을 매입하고 유통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사전 주문 신청을 받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삼은 천연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N. 캐롤라이나산 야생 천종산삼을 지역 심마니들과 독점 계약하여 공급 받는 것으로 신선도와 품질은 최상입니다.

사전 주문의 장점

- 시즌 판매가의 절반이상으로 약75%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시즌 시작 첫 채취 물량으로 생산삼의 품질이 보장됩니다.
- 신선도가 최상품으로 최장 4개월까지 냉장보관 가능합니다.
- 생식, 건조, 꿀산삼, 담금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용가능합니다

사전 주문 신청마감

2023년 8월 31일까지

제한적인 확보량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조 공인 뉴트리션리스트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950
25년-60년산 혼합
1파운드
60-70뿌리

인증 받은 진품

노우스 캐롤라이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산삼을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은 이곳에 거주하는 심마니들이 채취한 산삼을 지역 농림부에서 인증을 받아 스테이트 밖으로 반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진품입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주문 가능하며 방문시 농림부 인증서를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동구매 참여하신 산삼 구입 고객 후기

많은 분들의 후기중 지역별로 몇 분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진짜 산삼을 만난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산삼의 효능을 제대로 느꼈어요.” - 70대 여 La Palma, CA

“처음이라 믿기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주문하겠습니다.” - 50대 남 Seattle, WA

“향이 너무 좋고 맛이 그동안 먹었던 것과 다르네요! 매년 꼭 챙겨서 먹을게요.” - 60대 여 L.A. CA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온가족이 먹기에 충분해요.” - 40대 남 New York, NY

“진품은 다르네요. 내년에는 더 구입해서 한국에도 보내야겠어요.” - 50대 남 Fort Lee, NJ

전화 주문 및 상담 환영

213-277-8866

3341-A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엘에이 조선갈비 건너편)

본 이벤트는 8월중 오픈 예정인 신규 매장으로 이전을 앞두고 고객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BUY 1 GET 1 FREE



\$45.00 +Tax

메가 구연산 캡슐

Mega Citric Acid 60 v-caps



3병

~~\$135~~
\$110

면역력 강화 특화 영양제
에키네시아/산삼
120 캡슐

당뇨 /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면역강화

1+1 하나공짜

각종 알러지 예방/치료

\$55

천종산삼 여주
120 베지캡슐

당뇨, 통풍
류머티스, 아령증
피부병
천연인슐린

1+1 하나공짜

~~\$45~~

민들레/영경귀/천종산삼
100 베지캡슐

간기능 개선
지방간
만성피로
혈액순환

1+1 하나공짜

\$48

1+1 하나공짜

Ultra Collagen
90 캡슐

\$65



산삼 아나볼릭

1+1 하나공짜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조루 / 전립선 개선

12정 \$85 24정 \$150

북미, 유럽의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노루궁뎅이 버섯+산삼
Lion's Mane Mushroom 120 캡슐

치매
알치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염증 / 면역력

1+1 하나공짜

\$65

“치매 예방 및 완화 특효”

“하늘이 주신 신비의 식물, 시서스!”
산삼 시서스 120 베지캡슐

뼈, 관절 건강, 체질 개선
지방증가 억제, 지방 분해

1+1 하나공짜

~~\$65~~
\$55

산삼 콜라겐
90 캡슐

순도 100% 콜라겐
천종산삼 / 천연유황
히알루론산 / 포도씨농축
피부건강 / 손톱건강
모발건강 / 뼈건강

3341-A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엘에이 조선갈비 건너편)

전화 주문 및 상담 환영 **213-277-8866**

애플TV+ <파친코 시즌2> '파친코' 시즌2로 돌아왔다, 더 큰 스케일로 역사적 사건 더해



지난달 13일 뉴욕에서 진행된 프레스 데이 행사에 참석한 한수역의 이민호와 선자역 김민하, 솔로먼역 진 하가 함께 포즈를 취했다. <Apple 제공>

이민호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한수의 사랑” 김민하 “너무 치열해 통제 불능인 선자의 사랑”

애플TV+ <파친코> 시즌2에서 고한수는 선자를 도와주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준다. 선자(김민하)는 성숙하고 강인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한수(이민호)는 다시 그녀의 삶 속으로 밀려들어와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지난달 뉴욕에서 진행된 프레스 데이에서 이민호는 시즌1에서 아버지를 잃은 한수가 인간성을 포기했다는 점에 착안해 ‘한수’라는 인물의 깊이를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민호는 “그 상실감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남은 인생을 지배했다. 선자와 노아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한수는 자신의 인간성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선자는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준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는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시즌은 1936년에서 이야기가 끝났고 <파친코> 시즌2에서는 1945년으로 넘어간다. 선자는 여전히 김치를 팔고 있고 오사카에서 한수는 전쟁통에도 선자의 가족을 안전하게 피난시켜 줄 만큼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있다.

이민호는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해도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선자와 노아는 한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이자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사랑을 느껴야 살아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사랑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

<파친코>의 한수는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충실한 매우 강한 남자다. 시즌1에서 선자가 한수를 만났을 때는 아주 어리고 순진한 여자였고 그들은 사랑에 빠

졌다. 그러나 한수는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자신이 진정으로 아끼는 것들을 온전히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시즌2에 와서 한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때면 방해물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시즌2는 사랑에 대한 발견과 상실, 전쟁과 생존을 위한 싸움, 그리고 모두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선자의 삶을 통해 일본의 변화와 가족의 진화를 보게 된다. 선자와 아이들은 한수의 도움과 지

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즌1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한수와 선자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 뒤에 닥칠 고통을 알면서도 두 사람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씨름하게 만든다.

선자와 한수의 사랑은 깊고 복잡하다. <파친코>의 크리에이터이자 총괄 프로듀서인 수 휴는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서사적인 러브 스토리로 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한수가 선자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둘 다 사실이다. <파친코>를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여성들의 이야기가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하지만 한수와 선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결점이 많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선자와 한수는 서로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보았다. 한수는 선자를 자신의 구원자로 여긴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 와서 생존을 위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한 그는 일본 경찰에 맞서 “나는 한국인이고 여기는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선자를 만나게 된다. 한수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첫 번째 시즌에서 선자는 사랑에 미숙한 순진한 소녀였다. 하지만 시즌2에서 선자와 한수 두 사람은 조금 평등해졌고 그 덕분에 사랑이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성인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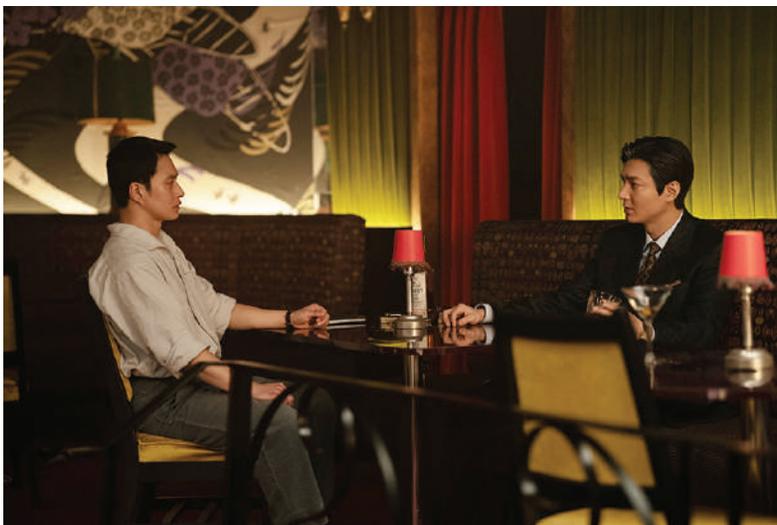
이러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젊은 시절 선자역을 연기한 김민하는 “선자와 한수 사이의 에너지는 직설적이고 치열하기까지 하다”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했다. 김민하는 “두 사람이 솔직해지는 순간은 두 사람 사이의 케미가 흘러나오는 순간뿐이다. 선자는 항상 한수를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저항한다. 하지만 한수와 함께라면 옳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몸이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고통스럽지만 솔직하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녀는 “선자에게 이삭과의 관계는 일관성이 있다. 그의 아내로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보호한다. 하지만 한수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랑이다. 선자의 몸은 그저 반응할 뿐이다. 그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녀는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 한수 앞에 있을 때나 한수 생각만 해도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애플TV+를 통해 첫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한 <파친코> 시즌2는 매주 금요일마다 에피소드를 하나씩 공개한다. <파친코>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이민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대하 드라마이다. 고국을 떠나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 가족 4대의 삶과 꿈을 그려냈으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에 빛나는 윤여정과 이민호, 김민하, 진하, 정은채, 김성규, 안나 사와이 등이 출연한다.

<하은선 / 골든글로브협회(GGA)원>



에피소드 5에서 해방 후 거취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고한수(이민호·오른쪽)와 김창규(김성규). <Apple 제공>



<파친코> 시즌 2 에피소드 3에서 2차 대전 발발로 피난을 온 선자(김민하)를 찾아온 한수(이민호). <Apple 제공>



하드머니 7%대 이자

- ☑ 일주일 안에 처리 가능
- ☑ 저렴한 비용(Point)

용자전문

용자외길 34년, 브라이언 주의 경험과 완벽한 일처리, 꼼꼼한 마무리 헤일리 홍에게 맡겨주세요!

● 주택 2차 용자

- 현재 저렴한 용자 유지하며 집 가격의 75%까지 용자 가능
- 세금 보고 필요 없음 (직장인, 자영업)
- 이자 8% 후반 30년 고정

● EASY DOC

- 25-30 % DOWN 7.5%부터 시작
- 재직증명만으로 용자 가능
- 12Mons Bank Statements 만으로 용자 가능

● Merchant Credit Card Loan

- 크레딧 카드 매출이 매달 \$50,000 이상이면 가능
- Credit Score 580점 이상/ 2-3일 만에 Funding 가능
- NO FEE

● 30년 고정 6.25% 부터

- ✔ 최저이자 서비스
- ✔ 신속 친절 용자
- ✔ NO Cost 용자
- ✔ 개인별 맞춤 용자



브라이언 주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BrianJoo@aol.com

Brian Joo

NMLS #335934

213.219.9988

한국일보경제면 전문가칼럼게재중



헤일리 홍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Hailey Hong

NMLS # 2389535

714.253.2937

leewayfunding4@gmail.com



브라이언 주 용자
BrianJoo NMLS #335934

3600 Wilshire Blvd. Ste 410, LA., CA 90010 |

213.219.9988

대중 곁으로 한발짝 “편견 깬조”



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가 갔다”고 했다.

첫 방송 전 웹예능 ‘짠한형’에서 정은지를 향한 호감을 드러냈다. 이정은도 최진혁과 정은지가 커플로 이뤄지길 바랐다. 정은지와 로맨스는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도

극중 정장을 입어야 해 관리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극본에는 상의 탈의하는 신이 없었는데, 감독님이 미진 어머니가 집에 데려왔을 때 ‘옷을 벗고 빠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당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다”면서 “정장을 입어야 해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다. 상의 탈을 하고 빨고 있으니 웃기긴 하더라. 조명팀과 카메라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잘 나왔다”며 만족했다.

최진혁은 2006년 KBS 2TV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으로 데뷔했다. 당시 경쟁률 6000대 1을 뚫고 톱10에 들었고, 최종 우승했다. 이후 드라마 ‘파스타’(2010) ‘내 딸 꽃님이’(2011~2012) ‘상속자들’(2013) ‘터널’(2017) ‘황후의 품격’(2018~2019)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2023)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어느덧 데뷔 18년 차로, 내년엔 마흔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적지 않을 터다. “딱히 그런 건 없다”며 “마음만은 20대 후반 인데, 어린 친구들은 나이 많은 대선배라고 생각하더라. 그럴 때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싶지만, 크게 와 닿거나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차라리 나이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액션, 누아르를 전문적으로 한 적이 없다. 더 나이 들면 못하니, 조금 더 거친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미우새에선 어머니에게 혼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칭찬해준 점도 있지 않을까 궁금했다. “어머니는 딱히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울백을 맞아도 칭찬을 안 해주더라. 그 정도로 엄격했다”며 “친구들이 ‘너 잘 한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서른살 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 ‘너무 무겁고 진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탈하려고 했다. 원래 ‘I’(내향형)였는데, 사람들과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 ‘E’(외향형)로 바뀌었다. 사람들과 친해지니 작업할 때도 다르고, 연기도 조금 편안해졌다. 이번에 이정은 선배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누구 한명에게 의해서 팀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는지 알게 됐다. 주연의 책임이라고 느꼈고, 앞으로 어딜 가든 ‘연기 잘 한다’는 얘기를 가장 듣고 싶다.”

<뉴스시스>

“둘 다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 너무 친해져 형제 케미가 나왔다”며 웃었다. ‘로맨스 연기하며 설렌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설렌 적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사실 연기할 때는 설렌다. 멜로 연기할 때 당연히 남자로서 여자를 봐야 하는데, 컷만 하면 은지가 ‘뭐했냐’고 하니깐. 서로 일할 때는 몰입했다”고 돌아봤다.

미진과 ‘고원’(백서후)이 ‘더 잘 어울린다’는 반응도 많았다. “그럴 수 있다”면서 “시청자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느냐. 삼각관계에선 어쩔 수 없다. 이런 경험을 한 두 번 해본 것도 아니”라며 받아들였다. 지웅이 ‘임순이 미진인 걸 몰라서 답답하다’는 의견엔 “나도 솔직히 답답했다”

고 인정했다. “내가 지웅이라면 미행이라도 했을텐데, 그렇게 축이 좋은 검사가 ‘이상하네’ 하고 넘어가지 않느냐”면서 “납득하긴 어려웠지만, 틀을 바꾸면 이야기 자체가 흔들린다. 신 바이 신으로 껴야 해 수궁하고 연기했다. 현장에서 ‘왜 이걸 모르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다”고 부연했다.

“지웅은 일할 때 똑 부러지지만, 미진과 임순이랑 같이 있을 때는 1% 모자라고 사람 냄새 나는 캐릭터로 갔으면 했다. 딱딱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부터 ‘주병덕’(윤병희)과 서로 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해져서 케미가 잘 나왔다. 애드리브도 엄청 했다. 사무실 배경으로 찍을 때는 애드리브가 난무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서 연기를 못할 정도였다. 재미있는 걸 찾다 보니 리허설 할 때 의견도 많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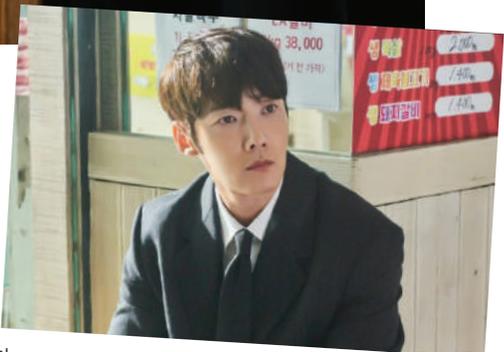
1% 모자란 듯한 검사로 이미지 변신...대중과 더 가까워진 것 실감
“이정은 선배 보며 많이 배웠다... ‘연기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다”

배우 최진혁(38·김태호)은 JTBC 주말극 ‘낮과 밤이 다른 그녀’로 편견을 깬다. 장르물에서 주로 형사, 변호사, 검사 등을 맡아 차가운 이미지가 강했다. SBS TV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허술한 매력을 보여줬고, 이 드라마로 대중들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 검사 ‘계지웅’으로 분해 추준생 ‘이미진’(정은지)과 부캐릭터인 50대 여성 ‘임순’(이정은) 사이 로맨스로 재미를 더했다. “예전엔 식당 가면 알아봐도 말을 안 걸었는데, 요즘은 한참 얘기한다”며 좋아라했다.

“사실 이런 편견을 깨고 싶어서 미우새에 출연했다. ‘왜 나를 차갑고 무거운 사람으로 보는 걸까?’ 싶더라. 처음엔 예능 출연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그 틀을 깨고 싶어 출연했다.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모지리’처럼 나왔는데, 평소 장난기가 많고 허술하다. 초반에 지웅은 차

가워 보여야 했지만, 이정은 누나와 윤병희 형이 연기하는 걸 보고 너무 무겁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았다. 사건을 해결해야 해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어야 해 균형을 맞췄다. 정통 코미디 제안이 오면 제대로 망가지고 싶다.”

이 드라마는 어느 날 갑자기 노년 타임에 갇힌 미진과 그녀에게 휘말린 검사 지웅의 로맨틱 코미디다. 1회 시청률 4.0%(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11.7%로 막을 내렸다. 시청률 10%가 넘으면 댄스 챌린지를 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정은 누나가 3주 전부터 단톡방에 ‘8% 넘었으니까 준비하자’고 했지만, 이후 찝찝찝 올라 약이 오르더라”면서 “즉석에서 탕후루 챌린지도 했는데, 준비없이 하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



이미 이정은(54), 정은지(30)와 호흡에서 흥행 기운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한 작품 중 분위기가 제일 좋았다”고 할 정도다. ‘이정은 출연 소식을 듣고 설레었다’고 했는데, “누나가 캐스팅 돼 ‘무조건 해야겠다’ 싶었다. 누나랑 연기하면서 ‘난 아직 멀었구나’ 싶었다. 지금까지 초심과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 처음으로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냈다. 최근 이정은 소속사 애닉이엔티에 동지를 튼 것과 관련해 서도 “아무래도 누나가 영향을 끼쳤다. 신인 때부터 13년째 대표님과 함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거친 역 해보고 싶다”

이름 앞에 '변신'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배우 임지연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2011년 영화 '재난영화'로 데뷔한 그는 '인간중독'(2014), '간신'(2015). 드라마 '상류 사회'(2015), '장미맨션'(2022)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2022~2023)에서 학교폭력 주동자로 변신해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부모를 등에 업고 죄책감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박연진 역을

맡아 임지연이라는 이름 석 자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오는 7일 개봉하는 영화 '리볼버'는 임지연의 다음 변신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영화는 경찰 조직의 비리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형사 수영(전도연)이 약속한 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에 나서는 이야기다.

임지연은 출소한 수영에게 접근하는 술집 마담 정윤선을 연기했다. 수영의 조력자인지 배신자인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영화는 주연인 전도연이 처음부터 끌고 가지만, 임지연의 역할 역시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관객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는 인다.

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임지연은 '리볼버'에 대해 “전도연 선배와 오승욱 감독님의 조화라는 것만으로도 선택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다”며 “무조건 한다고 했다. 대본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연기할 때 이것저것 계산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난다긴다하는 선배들 사이에서 ‘못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는데 전도연 선배님과 (본부장 역의) 김중수 선배가 ‘그냥 네 모습으로 해. 한 번 해봐’라고 용기를 주신 게 도움이 컸다”고 긍정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아차’했다 싶었죠. 나도 용기를 내서 한 번 해보자, 정윤선이 됐다고 믿어보자. 그래서 현장에서 선배들에게 정윤선으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자신에게도 칭찬도 많이 했는데 그게 꼭 알을 깨고 나온 기분 같더라고요.”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이 너무 선명하고 저도 후배들에게 그런 기운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며 “선배 앞에서 연기를 잘 하는 후배보다 서로 인물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극 중 윤선 역의 스타일이 '더 글로리'의 연

산전수전 다 겪은 술집 마담 역할...하이힐에 양말 신고 강렬한 연기 변신 “이번 역할 통해 알을 깨고 나온 것 같다...더 강한 캐릭터 도전하고 싶다”

계산이 아닌 본능을 선택한 임지연은 자유롭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윤선이 돼 갔다. “워낙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니깐 말도 안 되게 하이힐에 양말도 신고, 색채가 강한 의상을 매칭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느껴지는 대로 정윤선을 시작했습니다.”

수영 역을 맡은 선배 전도연은 학창 시절부터 열혈 팬이라고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출신인 그는 스스로를 ‘한예종 전도연’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고 다녔다. 배우를 꿈꾸던 어린 시절 전도연을 너무 닮고 싶은 마음에 그런 별명을 지었다는 게 이유다.

임지연은 전도연과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슛 들어가기 전 제 눈을 뻗히 바라보시는 선배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며 “선배로서 ‘너 잘해라’가 아니라 하수영으로서 ‘너 정윤선이 지? 여기 왜 왔어?’라고 쳐다보는 것 같았다”

진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했다. “연진이도 색채가 강해서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예요. 앞으로 연진을 깨거나 넘어서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걱정도 하고 싶지 않아요. 둘은 다른 인물이예요.”

윤선 역을 통해 배우로서 자존감도 올랐다. 임지연은 “미친 자존감을 가진 윤선을 연기하면서 스스로가 좋아졌다”며 “악착같이 치열하게 하는 것 말고 내려놓고 막 놀아보는 것도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다.

“저는 여전히 재능이 많지 않아요. 여전히 연기가 무섭고요. 하지만 배우는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이번에 알을 깨으니 더 러프한 캐릭터를 맡아 밀도 있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뉴스시스>



포도콜에서 찰칵



제로베이스원 규빈이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진행된 스위스 명품 패션 브랜드의 캡슐 컬렉션 론칭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코 장인들



배우 정해인과 정소민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된 tvN 새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극본 신하은/연출 유제원)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함께여서 더 완벽한 8주년



그룹 블랙핑크(BLACK PINK)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영등포점에서 진행된 '본 핑크 인 시네마스(BORN PINK IN CINEMAS)' 핑크 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웨스턴 **도마** 칼국수

어머니가 해주신 집 밥이 그리울 때 도마 아줌마가 맛나게 해주는 밥 한 끼 먹으러

웨스턴 도마 칼국수로 간다

은대구 조림



해물파전



닭도리탕



아귀찜



갈비구이



비빔밥



삼계탕



열무국수



푹배기 불고기



떡만두국

웨스턴 도마 칼국수
Western Doma Noodles

Tel. (323) 871.1955

영업시간: 10 am ~ 10 pm
(7 Days Open)

429 N. Western Ave, #10
Los Angeles, CA 90004

Rosewood Ave



도마 칼국수

Beverly Blvd

Western Ave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진 한 장 “엄마가 걷던 사람 냄새 나던 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설명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격주 화요일마다 한 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H매거진 이 사진 한 장에 응모해주신 분 들께 감사합니다.
선정되신 분께서는 3731 Wilshire Blvd. #1000 LOS ANGELES로
8월 22일까지 ID지참 방문하셔서 소정의 상품(라디오서울 대나무 도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e-mail | mkh@tvhankook.com
H매거진 이 사진 한 장 담당자 앞

※ 사진 주제와 소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인물사진과 같이 초상권,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저기 엄마가 걸어가신다.

초록 내음으로 가득 채워진 길
그 내음 속에

엄마의 자욱이 가득 채워진 길

그 사람 냄새 나던 그 길을
오늘 걷고 싶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회원사
 CA License No. 0E81053
 한인의류협회(KAMA) 공식지정보험사
 한인섬유협회(KATA) 공식지정보험사
 한인호텔협회(OKHA) 공식지정보험사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특별회원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캘코보험이
 올해 또 다른 30주년을 시작합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보험사,
 캘코보험의 성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캘코보험은 2024년 정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험 영업(Insurance Agent) ----- 0명
 보험 Underwriter ----- 0명
 일반 사무직(Admin, IT, Accounting) -----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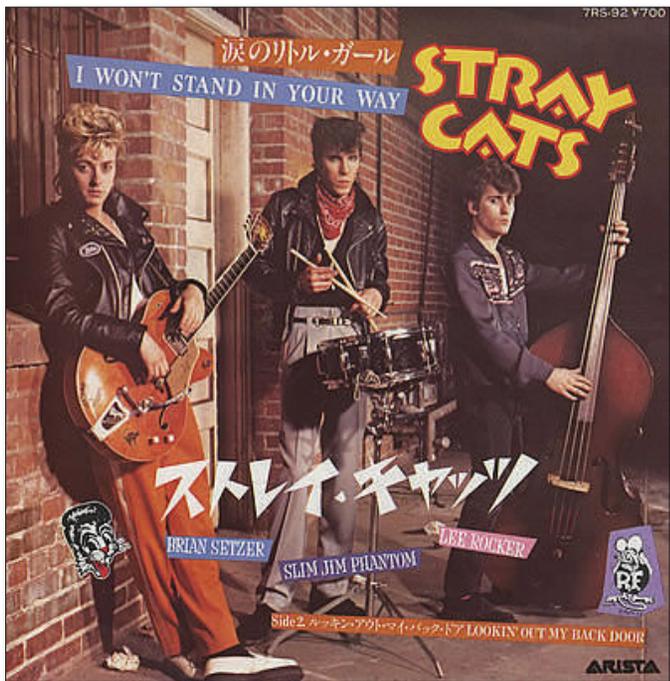
채용 관련 문의는 213-616-1608 또는 hr@calkor.com으로 이력서를 보내 주십시오.
 보험 사무직 및 보험 영업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걱정끄세요. 캘코보험이 있습니다.

 **캘코보험**
 CAL-KOR Insurance
 3255 Wilshire Blvd., Ste 1500, Los Angeles, CA
 무료상담 (213) 387-5000
 www.calkor.com

오늘 저녁 이 노래 한 곡

I Won't Stand in Your Way

Song by Stray Cats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의 기억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소설의 가사에 그녀와 나의 추억이 담기고, 한 음절의 멜로디에 그이와 나의 그림이 묻어져 버린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음악 한 곡을 이 지면에 담아 본다.

H매거진이 추천하는 이 노래 한 곡, 오늘 저녁 와인이나 차 한잔 하며 유튜브나 스트리밍 앱 더 나아가서 음반을 구입해 들어보며 기억과 함께 쉬는 시간을 권한다.

연인에게 헤어짐을 말하면서 당신 앞에 더 이상 열정대지(?) 않겠다는 싸나이의 아픈 마음을 느끼는 이 노래를 불러주는 스트레이 캣츠(Stray Cats)는 1979년 뉴욕의 롱아일랜드 마을 마사페콰(Massapequa)에서 기타리스트 겸 보컬 브라이언 세처(Brian Settzer), 더블 베이스리스트 리 로커(Lee Rocker), 드러머 슬림 짐 팬텀(Slim Jim Phantom)이 결성한 미국의 로커빌리 밴드다.

이 그룹은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 '스트레이 캣 스트럿(Stray Cat Strut)', '(She's) Sexy + 17', 'Look At That Cadillac', '록 디스 타운(Rock This Town)' 등의 신나는 락커빌리 스타일의 락 음악을 주로 발표해서 빅 히트를 쳤는데 이들에게 드물게 슬로우 러브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인 "너의 길을 막지 않을 거야" "I won't stand in your way"라는 숨겨진 보석 같은 락 발라드 노래가 있는 걸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1983년에 발표된 이 노래가 한국에서 대학가 음악 다방이나 카페에서 신청곡으로 많이 리퀘스트 되어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기도 했었다.

I got a low down dirty feeling
나는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That I been cheated on and lied to
내가 바람을 피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If it's so then it's wrong
그랬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We've hung on for so long
우리는 너무 오래 만났습니다

Why don't we have that magic anymore
더 이상 그 마법을 가지지 않는 게 어때요

I've got a strange sneaking suspicion
이상한 의심이 들어요

That's it's been going on for sometime now
그게 얼마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Yeah) something shines in your eyes
(Yeah) 당신의 눈에서 무언가가 빛납니다

Something stirs deep inside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휘젓습니다

I won't stand in your way anymore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You say that I'm just a little girl who's easily led astray
당신은 내가 쉽게 길을 잃은 어린 소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Well aren't you that same little girl
당신도 저와 같은 어린 소녀가 아닌가요

Who always gets her way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I got a strange sneaking suspicion
나는 이상한 몰래 의심을 받았습니다

That it's been going on for sometime now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Yeah) something shines in your eyes
(Yeah) 당신의 눈에서 무언가가 빛납니다

Something stirs deep inside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휘젓습니다

I won't stand in your way anymore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You say that I'm just a little girl who's easily led astray
당신은 내가 쉽게 길을 잃은 어린 소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Well aren't you that same little girl
당신도 저와 같은 어린 소녀가 아닌가요

Who always gets her way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I got a low down dirty feeling
나는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That I've been cheated on and lied to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한 건

(Yeah) if it's so then it's wrong
(네) 그랬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We've hung on for so long
우리는 너무 오래 만났습니다

I won't stand in your way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I won't stand in your way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I won't stand in your way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I won't stand in your way
당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Any more
더 이상

상담 전화 (213)739-2877 www.askjiyun.com (8월 27일 - 9월 9일)



지윤철학원



쥐띠 - 거리를 두고

운수 :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못 보던 것도 보게 됩니다.
금전 : 미리 계산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겉보기에 남는 것 같아도 현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애정 : 상대의 마음을 잘 살피야 합니다. 밖으로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9, 1, 5, 8일 길일. 30, 31, 3, 6일 주의.



말띠 -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운수 :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는 정말 수습하기 어렵게 됩니다.
금전 :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가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애정 : 순간적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격한 말을 쏟아내서 상처를 주지 마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30, 2, 4, 7일 길일. 28, 29, 6, 9일 주의.



소띠 - 큰 것을 얻게 되는

운수 : 새로운 계기가 생기면서 기대감도 커집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니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 욕심을 버리고 소를 희생시키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의외로 큰 것을 얻게 되는 운세이니 크게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애정 :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워지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8, 2, 6, 9일 길일. 30, 1, 4, 7일 주의.



양띠 - 뿌듯하고 기분 좋은

운수 : 어렵고 힘들 것으로 생각한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금전 : 다른 때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여보세요. 금전운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 열심히 하는 만큼 얻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애정 :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1, 3, 8일 길일. 29, 4, 7, 9일 주의.



범띠 -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운수 : 머리나 복잡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때입니다. 일단 잠시 쉬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 호시탐탐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애정 : 남의 말보다 정작 중요한 가족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도록 하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31, 1, 3, 7일 길일. 30, 2, 5, 8일 주의.



원숭이띠 - 웃을 일이 많아지니

운수 : 필요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 너끈하게 제 몫을 해낼 것입니다.
금전 :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애정 : 웃을 일이 많아지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6, 7, 9일 길일. 27, 30, 2, 8일 주의.



토끼띠 - 돌아가는 상황부터 살피야

운수 :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니 자책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전 :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느냐고 빠져나가는 돈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입 못지않게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애정 :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잘 살피아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1, 4, 7, 8일 길일. 28, 3, 6, 9일 주의.



닭띠 - 아무리 급하더라도

운수 : 바늘허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충하다가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금전 : 내키지는 않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애정 :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냐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하지 마세요.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말도 이제는 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1, 2, 5일 길일. 28, 31, 3, 7일 주의.



용띠 -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운수 :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남보다 한발 앞서서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전 :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처럼 공간에 재물이 쌓여갑니다.
애정 : 오로지 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5, 6, 9일 길일. 29, 4, 7, 8일 주의.



개띠 - 인내심으로 버텨야

운수 :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를 놓친 것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이 꼬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으로 버텨야 합니다.
애정 :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1, 3, 5일 길일. 29, 1, 2, 4일 주의.



뱀띠 - 사랑이 꽃을 피우는

운수 :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 새로운 일이 연결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계약이나 거래로 인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 사랑이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애정이 샘솟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집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9, 3, 4, 6일 길일. 27, 30, 5, 8일 주의.



돼지띠 - 대인관계를 넓히고

운수 : 이사나 이전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뭔가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 전망이 밝은 일이 연결될 수 있으니 대인관계를 넓히고 주위를 잘 살피아 하겠습니다.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 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좋은 혼처가 들어올 때입니다. 자손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4, 7, 9일 길일. 30, 2, 5, 8일 주의.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메디케어 어려우시죠?
 **실버시티보험**을 만나면
혜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무료 상담**

메디케어 헬스 플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Annie Lee
이애니
(818) 633-0692
Lic.#OF94321



Annie Myung Sim
심명숙
(714) 333-5161
Lic.#OF67828



Angela Chang
장안젤라
(323) 707-4242
Lic.#OB84924



Benjamin Moon
문벤자민
(213) 800-2993
Lic.#0645833



B. J. Park
박범자
(213) 595-6065
Lic.#OC65066



Connie Kim
김경미
(213) 321-0302
Lic.#OK85152



Cindy Lee
이찬용
(909) 967-9793
Lic.#0171045



Daniel Jung
정다니엘
(213) 999-2829
Lic.#OD60367



Esther Choi
최윤경
(213) 393-1611
Lic.#OB51453



Gary Moon
문게리
(213) 505-2420
Lic.#OF92634



Hanna Gu
구현화
(213) 454-8164
Lic.#OM64324



Hee Ran Kim
김희란
(818) 751-4433
Lic.#0I25013



Helen Park
박헬렌
(213) 500-9393
Lic.#OB81853



Hyun Ja Han
한현자
(760) 780-5990
Lic.#OG72353



In Ho Paik
백인호
(213) 446-7341
Lic.#OA38972



Jae Myeong Shin
신재명
(714) 900-1599
Lic.#OH09792



Jin Sil Lee
이진실
(310) 803-0666
Lic.#OC19190



Joanne Hong
홍조앤
(818) 606-9486
Lic.#OH98253



Kyungah Chu
추경아
(310) 941-1155
Lic.#OD35285



Michelle Kim
김미옥
(562) 219-6770
Lic.#OK52268



Misun Cha
차미선
(213) 505-2087
Lic.#0I45353



Miyoung Hong
홍미영
(714) 715-6345
Lic.#0672051



Nataly Han
한나탈리
(213) 675-7898
Lic.#OE35909



Norman Cho
조남태
(213) 700-2599
Lic.#0571988



Sang Moo Shin
신상무
(562) 756-6407
Lic.#0643522



Settia Kim
김희자
(626) 348-7944
Lic.#OF36240



Stacy Joe
조스테이시
(310) 738-6703
Lic.#OE44925



Sumi Lee
이수미
(213) 302-6191
Lic.#0I29727



Sussy Kim
김성원
(562) 833-1885
Lic.#0812107



Tom Chang
장탐
(909) 702-2882
Lic.#OK98380



Yoosun Vaughn
민유선
(626) 500-7006
Lic.#0G83038



Young Seon Paik
백영선
(714) 875-2243
Lic.#OC18047



Yong Suk Won
원용석
(213) 200-3941
Lic.#0G76626

 실버시티보험에서 함께 할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와
General Agency를 모집합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 모집

우리는 귀하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메디케어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귀하의 지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Medicare.gov 또는 1-800-MEDICARE에 연락하십시오.



개국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 이 있나요?

당신이 늘 그려오던 꿈,
PCB BANK는 고객 한분 한분에 맞춘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PCB BANK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PCBility,
내일의 Possibility



mypcbbank.com